



부원경영 2014 Vol.7

2014.09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NEWSLETTER Vol.7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효원경영
biz.pusan.ac.kr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효원경영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
전화 051.510.1659~60,1678
팩스 051.581.3144
<http://biz.pusan.ac.kr>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NEWSLETTER

2014 SEPTEMBER VOL.7

효원경영

발행일 2014. 09

발행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발행인 최중서

전 화 051.510.1659-60, 1678

팩 스 051.581.3144

편집장 김경영

편집원 임영주, 임현기, 이나현

디자인 더블비전

<http://biz.pusan.ac.kr>

CONTENTS

Greeting

04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영대학 | 최중서

News Brief

06 주요 뉴스 | 교수 동정 | 장학
대학 행사 | 학생 수상 | 국제 관련
MBA | AMP | 동문회

Professor's Column

18 제2회 APDS 참관기 | 최중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 마케팅 공학의 역할 | 송태호
경영학과 길을 묻다 | 김종관
전자상거래에서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는
원인과 보호반응에 관한 연구 :
주인 - 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 김종기

Celebrity Column

28 부산인적자원개발원 기획조정실장 | 왕제필

Interview

30 AMP 64기 사무국장 | 김성관

Student's Column

32 한화건설 취업수기 | 양승현
POSCO Scholarship 합격수기 | 박세영
우리모두가 Start-up! | 김성희

Participation

40 농촌활동 수기 | 김문수
PNUBIZ Global Challenger 수기 | 성하라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어학연수 수기 | 김성현

Introduction of Circles

46 F&M
성혜

50 새내기 캠퍼스 탐방

52 경영대학 발전기금

59 편집후기





효원경영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여름을 보내고 2014년 청마의 해도 어느새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봄 학기 동안 학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가을 학기 또한 많은 도전과 응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모쪼록 경영가족이 합심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선도적 경영교육·연구의 hub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장기비전에 따라 지난 학기 동안 경영대학(원)은 아시아 여러 지역의 경영대학(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들 중 일부 기관과는 이번 학기부터 학생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의 경영관리대학원이 그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교토대학교에서는 다가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가을학기에 맞추어 2명의 경영대학원생이 1학기 동안의 수학을 목적으로 파견됩니다. 교토대학 경영관리대학원은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국내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대학원생의 교류를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부산대학교가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생의 상대적 역량이 국제무대에서 가늠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파견되는 학생들이 매사에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

으로 학점 교류를 완수하고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사절단으로서 바람직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귀국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Universiti Sains Malaysia(USM)와는 2015년 1학기부터 매 학기 10명의 범위에서 학부생 교류를 개시하기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강서재경대학교, 일본의 도야마대학교, 베트남의 호찌민 대학교 등과도 교류가 조만간 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수년간 세계의 여러 국가로부터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국내 경영대학을 방문하는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을 찾는 교환학생들의 수도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봄 학기 동안 독일, 핀란드,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부터 방문한 교환학생들이 경영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가을 학기에는 프랑스,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온 10여 명의 학생이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권 주요대학의 경우 최근 inbound 교환학생의 수가 매 학기 수백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동남권의 거점대학으로 알려진 부산대학을 방문하려는 외국 학생의 수도 급증할 가능성이 큼니다. 경영대학 집행부는 교환학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

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정기적 면담 및 설문조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로부터 파견되어 올 교환학생들에 대해서도 부산대학교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와 배려를 다 할 계획입니다. 지난 학기의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의 수학경험이 대단히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부산대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부산의 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으나 강의의 내용, 학교 서비스의 질, 물리적 환경 등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컨대 버디 학생 제도가 비체계적이며 수강신청 및 행정시스템이 불편하였고 강의환경에서 언어소통에 일부 문제가 있으며 교과서에 의존한 일방적 강의가 지적 자극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권위 있는 역사학자들은 조직과 사회,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장기적 요인으로 개방성(tolerance)을 들고 있습니다. 과거 천년왕국을 구가했던 로마제국의 예는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생국가인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된 배경도 개방적 이민정책과 유연한 세계인재의 흡수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한 때 야만족, 적대세력으로 취급되던 종족이나 인종으로부터 황제 혹은 국가의 수반이 발탁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묻히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이익에 최선의 도움이 되는 변화와 혁신을 과감하게 추구한 결과 최강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쇠국정책을 고수한 민족과 국가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되는지는 역사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지식 및 기술의 생산과 전수를 기능으로 하는 대학에 있어서 이러한 개방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으며 과학적 지식체(scientific body of knowledge)는 간단없이 진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누군가에 의한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현존하는 지식체에 편입되고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전 세계의 학문공동체에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응용지식과 기술의 탐구와 개발을 지향하는 경영대학의 경우 이러한 개방성과 혁신의 추구는 다른 어떠한 조직에 비해서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의 선도적 경영대학에서 제공되는 연구와 교육의 성과물은 전 세계의 경영학도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이 국내외의 위상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적 시각과 혁신의 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호를 개방해야 하며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최고의 지식과 기술의 생산과 전수에 박차를 가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유학생과 교환학생들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을 방문하고 이곳에서의 수학경험이 수도권 주요대학, 자신들의 모교에 비하여 절대 부족하지 않았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의 우수한 경영대학을 경험하고 돌아온 우리의 학생들이 스스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세계의 선도적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modus operandi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중진국의 굴레를 벗어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기본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란 다름 아닌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의미합니다. 지구 상의 그 누구라도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가치란 결국 진선미에 대한 인간사회의 본원적 열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상

세계의 선도적 경영대학에서 제공되는 연구와 교육의 성과물은 전 세계의 경영학도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이 국내외의 위상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적 시각과 혁신의 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논리적인 통찰, 타인에 대한 존경과 배려, 겸손과 온화함,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기술의 개발 등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지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편협한 사고방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위, 현상에 대한 왜곡된 시각, 무례와 경솔, 조악한 기술, 오류와 편견의 정당화, 꿈수와 기회주의 등은 합리적 사고를 지닌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종국적으로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 추구하고 깨를 같이합니다. 최선과 최고는 원점에서부터 그 기반이 올바르게 서야만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란 Back to the Basic의 사고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국내외의 선도적 대학들의 장점과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가 지닌 구태의연한 폐단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뿌리가 튼튼한 가운데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국내외적으로 널리 존경받는 글로벌 명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의 문턱에 서서 다시금 효원경영가족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2014년 9월 11일

Main News 주요뉴스

G company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커뮤니티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선정한 전국 10개의 '신(新)사업 아이디어 발굴 커뮤니티'팀 중 부산대 학생들이 세운 사회적 기업 'G COMPANY'가 발탁



선정된 10개의 팀에게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 활동을 위하여 지원금을 제공한다. 'Gorgeous and Good'을 의미하는 'G'를 내세운 'G COMPANY'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사용하는 리어카에 광고판을 부착하여 노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보탬이, 광고주가 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보다 저가격에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운영자 경영학과 09학번 송정웅(총괄/기획), 김성희(재무/마케팅) 씨와 아동가족학과 11학번 최고운(광고/디자인) 씨는 직접 리어카의 디자인을 제작하는 열의를 보이며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후에도 이러한 사업아이템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의향을 나타내었다.

경영대학 경영교육인증 재취득

2012년에 이어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으로부터 '경영교육인증'을 재취득

지난 5월에 제출한 3년 인증연장계획을 위한 교육개선보고서와 7월 현장실사를 통해 교육과정, 학습성과, 시설 및 교육환경 영역 등에서 핵심계량지표를 충족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안타깝게도 3년 연장을 기대하였으나 '교수 대 학생비율' 충족이 부족하여 1년 연장 승인을 받게 되었다. 경영교육인증은 경영교육의 내실화를 인증하는 제도로 교수진의 규모,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과 타당성, 교육시설의 적합성 등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 국내 대기업은 경영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을 선호할 추세이다.

조영복 교수 2년 연속 사회적 기업리더 과정

부산대가 2013년 이래 2년 연속으로 사회적 기업 리더과정 사업에 선정



이 과정은 Semi-석사학위과정(비학위과정)으로서 1년간 총 2학기제로 진행되며 학기당 2개 과목을 수강한다. 교과목은 '사회적 기업경영론 I·II', '사회적 기업 창업론', '사회적 기업모델 및 사례분석'이며, 부·울·경 지역의 대학(원)생 및 (예비)사회적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정원을 모집한다(작년 기준 경쟁률 3.7:1). 일정 기준의 수료조건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에 이르는 수료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고 대기업 및 사회적 기업 인턴십,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 리더과정 사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은 부산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유일한 사례이며, 오는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 협동과정'이 개설된다. 2년제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학 석사(Master of Social Entrepreneurship)' 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1학기에 10명 정원에 해당하는 신입생들에게 경영 이외에도 다양한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구성되는 연계 교육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부산지역 내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 전문가, 연구자 등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수동정 Professor News

신종국 교수
한국마케팅관리학회 제22대 회장 취임

지난 4월 26일 개최된 한국마케팅관리학회 정기총회에서
경영학과 신종국 교수 제22대 회장 취임

한국마케팅관리학회는 마케팅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무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으며, '마케팅관리연구' 학회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마케팅연구회, 마케팅대상 시상 등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학회이다. 회장 임기 동안 신종국 교수의 활발한 행보를 기대한다.

김종기 교수
정보 프라이버시 최우수·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정보시스템학회에서 경영학과 김종기 교수와 경영연구소 김진성 연구원이
최우수 논문상을,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에서 김종기 교수와
소속 대학원생 김재현(13학번)씨가 우수 논문상 수상

5월 23일에서 24일 이틀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2014년 한국정보시스템학회 및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한국정보시스템학회에서 경영학과 김종기 교수와 경영연구소 김진성 연구원이 최우수 논문상을,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에서 김종기 교수와 소속대학원생 김재현(13학번)씨가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최우수 논문상에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가 선정됐으며, 우수 논문상에는 "개인사용자의 보안행위 의도에 관한 실증연구 :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안인식 비교" 논문이 선정됐다. 수상 논문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생성되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의도를 규명한 연구로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행동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로 평가되었다.

홍태호 교수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온라인 상점 고객의 감성분류를 위한 용어기반
오피니언마이닝 : 아마존의 영화평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 수상

6월 13일 공무원연금공단 천안 상록리조트(천안)에서 경영학과 홍태호 교수와 소속대학원생 이태원(11학번)씨는 "온라인 상점 고객의 감성분류를 위한 용어기반 오피니언마이닝 : 아마존의 영화평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2014년 한국경영정보학회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Professor News 교수동정

경영대학 교수 워크숍

2014학년도 하계 교수워크숍이
8월 25~26일 1박 2일 간 제주도에서 개최

이번 워크숍에는 경영대학 교수 19명이 참석했으며 경영교육인
증 진행 보고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경영대학원의 교육선
진화 시스템 구축 논의, 경영대학 융합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변
화로써 부동산학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더
욱더 경쟁력을 갖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되길 바란다.



최종서 경영대학장 2014 Asia Pacific Business School Deans Summit 참여



지난 8월 27~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사)한국경영대학·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하는
2014 Asia Pacific Business School Deans Summit에
최종서 경영대학장 참여

이번 서밋(Summit)은 한국경영학 교육의 현안과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서구 중심에서 아
시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경영대학의 장들
이 모여서 Asia Pacific Business시대의 새 지평을 여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선도
하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되기를 바란다.

Scholarship 장학

장학생 선발

2014학년도 2학기 등록금재원 성적우수 장학생,
지방인재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이번 2014학년도 2학기 등록금재원 성적우수 장학생으로는 수업료+기성회비 25명, 수업료 69명, 기
성회비 1/2 지원 45명, 기성회비 1/4 지원 48명이 선발되었고, 지방인재(성적우수) 장학생으로는 수업
료+기성회비 19명, 수업료 28명, 기성회비 1/2 지원 29명, 기성회비 지원 1/4 27명이 선발되었다. 전
보다 많은 학생이 선발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장학금 수여자들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동
기부여가 되길 바란다.

대학행사 University Events

개강총회



2014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경영관 B동 109호에서 경영대학 개
강총회가 시행되었다. 이번 개강총회에서는 학사 일정, 학생회 활동
보고, 1학기 행사 안내, 학생회 부서 소개와 지원 안내 등의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특히 다른 학우들에 비하여 다소 정보에 미약한 신입생과
복학생 학우들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알림으로써 학
과생활 적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경영대 소리함 설치



경영대학 학생회에서는 이번 학기
부터 경영관 A동 1층 학생회실 앞
에 '경영대 소리함'을 설치하여 학생
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
'소리함'은 학생회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 활동이나, 건의사항 또는 응원
메시지 등 학생회에 전하고 싶은 말
을 적어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
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생회에서
는 학우들로부터 일주일에 두세 개
의 건의를 주기적으로 받고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경영대학 SNS에
알리며 원활한 운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복 Day

2014년 4월 1일, 만우절을 맞이하여 교복을 입고 등
교하는 교복데이 행사를 학생회에서 진행하였다. 이
날, 가장 교복을 많이 입고 오거나 특이한 자세로 사진
을 찍은 반에는 반 전체에 밥버거를 증정하였고, 교복
을 입고 온 학생들에게 추천권을 지급하여 당첨된 학

생에게도 다양한 상품을 지급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
도 많은 새내기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와서 친구들이
나 교수님들과 사진을 찍는 등 학창시절의 추억을 다
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직무특강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경영관 A동 212호
에서 경영대학 학술통아리 카플러스와 경영대학 학생

회가 주최하는 직무 특강이 열렸다. 대상은 부산대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경영대학 출신 카플
러스 선배들을 초청하여 단순한 인터넷 검색이 아닌 직
접 경험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취업에 대한 정
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안정진(경영 00학번), 박
준휘(경영 00학번), 김병수(경영 00학번), 김영일(회계
00학번) 총 네 명의 졸업생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CEO 표철민 토크콘서트



2014년 6월 2일 부산대학교 10.16 기념관에서 CEO 표철민 토크 콘서트
가 열렸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는 이번
이 두 번째이며 Be 프로젝트[대표 홍윤우(경영 11학번)]도 함께 하였다. 최
근 TV 프로그램 김미경 쇼에도 출연했으며, "성공하려면 실패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민 표철민 CEO는 열다섯 어린 나이에 웹 사업을 시작하여 당
시로써는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나갔지만, 본인의 현재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까지의 여러 번의 실패 경험담을 들려주며 대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
워하지 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토크 콘서트를 마쳤다. 앞으로
도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꾸준히 열리기를 기대한다.

University Events 대학행사

2014 효원배 축구대회
-MAD 우승

2014년 5월 13일 화요일 부산대학교 신축운동장에서 열린 효원배 축구대회 결승전 경기에서 우리 경영대학 축구동아리 MAD가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총 48팀이라는 많은 축구 동아리가 효원배 축구대회에 출전하였음에도 당당히 우승한 MAD에 박수를 보낸다. 내년에도 효원배 경기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는 바이다.



경영대학 농민 학생 연대활동



경영대학은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7박 8일 동안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암마을에서 안전하게 농민 학생 연대활동(농활)을 진행하였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약 25명이 참여한 이번 농활은 작년 못지않게 재미와 의미 있는 여러 활동을 했다. 참가자들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농민들의 고된 농사일을 직접 경험하였다. 봉사활동 진행 중 최중서 학장과 행정실 계장, 교수들께서 방문하여 응원의 말씀과 맛있는 음식을 전해주시기도 하였다. 뜨거운 여름,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봉사했던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경영체전

2014년 5월 24일 토요일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경영체전이 열렸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가 참여를 해주었는데 축구, 전략 줄다리기, 물풍선 많이 받기, 못다리밟기, 미션 릴레이, 피구, 빨리 먹기, 농구, 릴레이 순으로 반별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날, 일부 경영대학 학생들이 수익 전액 기부를 취지로 슬러시를 판매하여 경기를 뛰느라 땀 흘리는 학생들에게 반응도 좋고, 어려운 이들도 한 도움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2014 효원배 농구대회
-ACE 준우승

2014 효원배 농구대회에서 경영대학 농구동아리 에이스(ACE)가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효원배 농구대회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치러졌으며 부산대학교 중앙 농구동아리 점프가 주최하였다. 효원배 당시 에이스 회장이었던 권석진(금융공학전공 09학번) 회장은 전통의 맞수였던 기계공학부 농구동아리 메카와의 결승전이라 더욱 승리하고 싶었지만, 옆치락뒤치락하던 경기가 1점 차로 지게 되어 무척이나 아쉽다며 내년 효원배는 반드시 우승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월 22일 금요일 부산대학교 경암 체육관에서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상과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43명, 회계학전공 26명, 금융공학전공 10명을 포함하여 총 79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정든 캠퍼스를 배경으로 가족, 친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든 학교를 떠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더욱더 멋진 사회인이 되길 기대한다.

대학행사 University Events

PNU 경영학과 오픈 캠퍼스



5월 31일 토요일 경영관 B동 109호에서 경영대학 김종관 학과장의 진행 아래 'PNU 경영학과 오픈 캠퍼스'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약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오픈 캠퍼스는 부산대학교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알림으로써,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에 대한 기회와 입학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픈 캠퍼스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경영관 스터디룸 신설



경영대학 학생회는 부산대학교 단과대학 중 최초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한 무료 스터디룸(세미나실)을 경영관 A동 3층(330-4호, 330-5호, 330-6호)에 신설하였다. 이 역시 경제통상대학의 이전으로 생긴 공간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스터디룸에서 경영대학 학우들은 비용 걱정 없이 팀 과제, 그룹 스터디, 면접 준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 어느 기기든지 <http://www.pnubs.com>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며 최대 4시간까지 대여할 수 있다.

경영대학 학우들을 위한
PPT 강연

경영대학 학생회에서는 4월 1일과 2일에 경영관 B동 106호 전산실에서 PPT 전문가 이기승과 함께하는 PPT 강연을 시행하였다. 경영대학 학우들의 대부분 조별과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PPT를 잘 다루지 못하는 초보자들을 낱파별로 40명씩 8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였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에게 PPT 제작의 기법을 배우고 PPT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설과방 추가 및 과방 벽화

경영대학 학생회는 경제통상대학의 건물이전으로 생긴 공간을 활용하여 신설과방을 추가하여 벽화를 그렸다. 기존의 과방은 경영대학의 많은 학우에 비해 하나밖에 없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경영대학 학생회는 경제통상대학의 건물이전으로 생긴 공간을 활용하여 신설과방을 추가하였다. 노트북의 사용과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테이블을 배치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음식물의 반입은 금지된다. 또한, 쾌적한 과방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밋밋했던 과방의 벽에 벽화를 그렸고, 벽화는 디자인업체를 섭외하여 밑그림을 그린 뒤 학생회 부원들이 색칠했다.



스쿨투어

경영대학 학생회 홍보부는 부산지역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영학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4월 11일은 자산고등학교, 5월 23일은 대연고등학교와 브니엘고등학교, 5월 30일에는 덕문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진학문제를 비롯하여 대입생활의 궁금증까지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며 생생하게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설명회 중에 태도가 우수한 학생에게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과 잠비를 상품으로 증정하였다.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스쿨투어 활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University Events 대학행사

시험 응원행사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시험기간마다 밥버거를 증정했다. 경영대학 학생회 총무부에서는 한 학기에 두 번 있는 시험기간(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경영관 A동 로비에서 경영대학 학생임을 인증하는 학생증이나 모바일 학생증을 지참한 200명에 한정하여 밥버거를 증정했다. 공부하느라 끼니를 거르기 쉬운 학우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SMP 주최 모의투자대회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5일 동안 SMP(학술동아리)가 주최하고 하나대투증권 동래지점이 후원하는 모의투자대회가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모의투자대회는 기존 SMP회원들만 참여하여 경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의 재학생들도 함께 참여 가능한 규모로 진행되었다. 총 60명 이상의 학우들이 참여하여 모의투자를 통해 좋은 경험을 얻었다.

8월 6일, 대회 수상자에게는 1등(최우수상 경영 11학번 이진협) 20만 원, 2등(우수상 경제 09학번 김종훈) 15만 원, 3등(우수상 통계 10학번 정원호) 10만 원의 상금과 경영대학장 상장이 수여되었다. 단순히 투자 수익률이 아닌 학문적인 능력 또한 고려하기 위해 투자 시기 점수를 포함해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모의투자대회는 앞으로 매 학기 진행될 예정이며 많은 학우의 참여를 기대한다.

Student Awards 학생수상

비타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지난 5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2014 비타톤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김윤호(경영 09학번), 김도원(차세대대기기판 석사과정 14학번), 박나현(디자인 12학번)으로 구성된 '에스 피플(YES PEOPLE)'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상 팀은 센서와 통신기술을 이용한 안전벨트 착용 여부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처럼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써, 올해 처음 열린 비타톤 공모전에는 총 144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출품됐다.

스포윈 창조경영 GOOD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수상

4월 15일, 부산 지방공단 스포윈이 주최한 '스포윈 창조경영 GOOD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원준연(스포츠과학 09학번),



서다은(경영 10학번), 최종열(기계공학 10학번), 김원택(체육교육 11학번)으로 구성된 '와우(WOW)'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창조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참여형 수익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와우팀은 스포윈이 북적거리는 주말과 달리 주중은 한산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주중에 비교적 여가를 내기 쉬운 노인과 어린이를 주 고객층으로 한 '주중에 운동하자'는 'WOW(Working Out Weekdays)' 프로그램을 제안했



다. WOW 프로그램에서 노인 and 아이들은 계층별 성향에 맞춘 Silver Zone과 Gold Zone에서 참가자 중심의 체험형 스포츠인 뉴스포츠(New Sports)를 통해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운동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운동회 개념을 도입해 부산 지역 내 경로당과 유치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사업이 스포윈과 공동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학생수상 Student Awards

제12회 부산 우수 발명인 특허청장 표창



*스마트파머(Smart Farmer) : 농업 관련 제반 문제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과 같은 스마트 매체(태블릿 PC, 스마트 폰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영농인

지난 5월 16일 발명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강당에서 제12회 부산 우수 발명인 포상식이 열렸다. 이날은 이주홍(경영 박사과정 12학번) 씨가 시민 발명가 부문에 선정돼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주홍 씨는 박사과정 재학 중 스마트파머*를 창업해 전자화분 및 어플리케이션 연동 식물재배기 등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7개의 지적 재산권을 출원 또는 보유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대학과 기관, 협회 등에서 특허 및 창업 관련 강좌를 개최해 우리나라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발명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2014 부산대학교 창업동아리 지원프로그램 최종 수상

경영대학 창업동아리 Be Project팀(대표 11학번 홍윤우)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 창업캠프에서 "공연장 데이터베이스 기반 공연기획 플랫폼" 아이템으로 최종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부산대학교 창업동아리 지원프로그램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14년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최종합격 하여 전국 각지의 스타트업들과 경합을 앞두고 있을 만큼 대단한 실력을 입증하였다. 창업동아리 Be Project팀은 경영학도 두 명(11학번 홍윤우, 김찬휘)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경영대학의 창업동아리로서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여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



국제관련 International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현황



우리 경영대학은 2012년 5월 10일에 미국의 럿거스대학 경영대학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 Universiti Sains Malaysia(USM) Fauziah Md Taib 학장이 경영대학을 방문하여 학우들에게 강연하는 등 자매결연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올해에도 3월 31일에 최중서 경영대학 학장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교토대 경영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였고, 5월 16일에는 중국의 강서재경대학에서 Wu Zhaoyun, Li Min, Yang Jie, Xiao Xingfu 총 네 명의 대표단이 부산대학교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그 외에도 7월 15일에는 일본 호쿠리쿠(北陸) 지방의 도야마대학(富山大学) 경제학부 나카무라 카즈유키(中村和之) 학부장과 카키타 나오키(垣田直樹) 교수가 우리 경영대학과의 학생교류 협정체결을 위해 사전협의차 방문하였다. 우리 경영대학은 세계 여러 나라와 학술 및 교육상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경영대학의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바이다.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MBA 원우회 1차 Workshop 개최

지난 1월 15일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MBA 원우회 1차 Workshop이 개최되었다. 이번 Workshop에서는 최중서 경영대학원장을 비롯하여 강상훈 부원장, 2013년 원우회 집행부와 2014년 원우회 신입집행부가 참석하였다. Workshop에서는 최중서 경영대학원장의 축사와 더불어 2014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원우회에서 주관할 28개 행사에 대한 심의 및 예산(안)에 관한 설명회 및 집행부 업무분담 소개, 개정 회칙 의결 등 MBA 과정 행사 계획 심의 및 의결과 신입 집행부 상견례가 있었다. 한 해의 행사들을 계획하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MBA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월 12일 대학본부에서 '2014년 MBA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최중서 경영대학원장과 강상훈 부원장, 최용석 총동창회장 및 총동창회 임원, 2013년 원우회 집행부와 2014년 원우회 신입 집행부, 그리고 2014학년도 46기 신입생 등 총 124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입학 선서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포트폴리오 소개, 2014년 원우회 주요 행사와 신입 집행부 소개, 각 동호회 가입안내와 신입생 환영회 뒤풀이가 있었다. 46기 신입생들이 MBA를 통하여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한다.



MBA 정기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

3월 18일 농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4년 MBA 정기총회와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최중서 경영대학원장, 강상훈 부원장, 최용석 총동창회장 및 총동창회 임원, 2013년 원우회 집행부, 2014년 원우회 신입 집행부, 2014년 46기 신입생 등 총 110명이 참석하였으며, 2013년 MBA 원우회 경과보고 및 원우회장의 취임식과 2014년 주요행사 소개, 총동창회장 인사 말씀, 신입생 환영 행사를 진행하였다.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총동창 회장 배 골프대회

5월 9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MBA 총동창 회장 배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골프대회에는 최중서 경영대학원장, 최용석 총동창회장 및 총동창회 회원(OB), 원우회 42기~46기 등 총 80명이 참가하였다. MBA 총동창회의 새로운 출발과 결속을 위한 총동창회 및 경석회 주관 행사인 만큼 이번 골프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친목을 다지길 기대해 본다.



MBA 자연보호 등반대회



지난 5월 25일 초읍 어린이 대공원부터 금정산 북문까지 MBA 자연보호 등반대회 행사가 열렸다. 이번 등반대회는 체육대회 행사를 대체한 것으로 강병준 MBA 전 원우회장과 집행부, 전인수 원우회장 외 45, 46기 등 총 80명이 참가하였다. 수년간 MBA 최대 행사인 MBA 체육대회가 세월호 사건에 인한 사회 분위기로 자숙의 의미와 추모의 뜻을 기려 자연보호 산행행사로 대체 시행되었는데 이번 등반대회 행사에는 원우 가족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초도 시간을 가지는 원우간의 단합 도모 행사로 조출히 치러졌다.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활동 참여

6월 21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매년 MBA 주요 행사로 시행 중인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에 2013 MBA 강병준 전 원우회장 및 집행부, 2014년 전인수 원우회장 외 44, 45, 46기 등 총 60명이 참여하여 주춧돌에 일정한 성금을 전달하고 무상 급식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배식 및 식사 배송과 마무리 설거지를 하였다.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은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열리며 사회봉사 및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이다.



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AMP 64기
입학식

3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효원홀에서 최고경영자과정(AMP) 제64기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강신철 외 78명이 입학하였으며, 김윤진 AMP 총동문회장이 축사를 맡아 입학생 모두에게 최고경영자과정(AMP)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워크샵
및
산업시찰

3월 21~22일까지 이틀 동안 거제 삼성중공업과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샵 및 산업시찰 행사가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삼성중공업 산업시찰과 이순신리더쉽 특강이 진행되었고, 이튿날에는 한산도 제승당, 세병관 등의 통영 문화유적을 탐방하며 모두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 학생들이 모두 모여 만찬을 즐기며 동기간의 우애를 쌓기도 하였다.



1학기 종강특강



6월 12일 오후 6시에 농심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1학기 종강특강을 가졌다. 종강특강은 총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농심호텔 소믈리에를 초청하여 와인 특강을 가졌고, 2부에서는 1학기 종강식을 진행하며 한 학기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고경영자과정(AMP) 학생들은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회포를 풀었다.



선후배간담회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최고경영자과정(AMP) 강의실에서 AMP 64기와 AMP 총동문회 집행부의 선후배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본래는 김윤진 AMP 총동문회장의 특강 후에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AMP 64기 원우회에서 예정되어있던 행사비 350만 원 전액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였다. 이에 앞서 AMP 64기 원우회장 문병기 대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통한 마음에 적은 금액이지만 원우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 고통받는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였다.



동문회 Alumni Association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3월 13일 목요일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대학교 김기섭 총장, 정흥태 총동문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민병채 명예교수를 비롯한 7명의 명예교수와 모교 상과대학 재직 교수들, 박종익, 이상직 고문, 정환국, 재중국 등 많은 내외빈을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3년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한 김보두 회장(무역 70학번)은 함께 한 집행부들과 교수들, 그리고 여러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이임사를 남겼다. 이어서 새로 취임한 전석현 회장(무역 74학번)은 "김보두 전 회장과 많은 동문의 뜻을 받들어 더욱 단합되고 성장하는 동문회,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 최강 부산상대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임사를 전했다. 또한, 이날 두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상과대학에서 공부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도 초대하여 동문 선배배간의 끈끈한 정을 이어나갔다.

유학생 초청
부산상대동문회
단합대회

지난 5월 18일 부산대학교 개교 68주년을 기념하여 동문 및 동문가족, 교수, 학생, 유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즐겁고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견기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20만 동문들에게 상대동문회의 단합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행사 후 학교 앞 호프집에서 유학생들과 재학생들의 젊은 패기, 동문의 후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상대동문회의 의미 있는 이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동문 교류의 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중국 청도에서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동문회 첫 해외 교류행사가 열렸다. 동문회의 핵심 모임인 효원골프회에서 주관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보두 고문, 권오준 자문위원, 전석현 상대총동문회장, 박영운 효원골프회 회장, 박준희 총무를 포함한 부산지역 12명, 청도 현지 상대 동문 4명 및 부산대학교 청도 총동문회 총무부 회장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해외에서 사업 및 근무 중인 동문과의 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사가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니 동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또한, 청도를 방문한 동문은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중국 땅이 전혀 낯설지 않았고, 지역이 어디든 상과 대학 출신에 대한 자부심은 모두 똑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The Second apds Asia Pacific Business School Deans Summit

August 27th~ 29th, 2014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제2회 APDS 참관기



교수/경영대학장 최 중 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영대학장 회의(APDS : Asia Pacific Business School Deans Summit)에 참석하였다. APDS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주도하여 2013년에 창설한 다국적 회의체로서 창립회의는 2013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개최된 바 있다. APDS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 경영대학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영대학들의 교육과 연구의 비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족하였다.

제1회 대회에서는 국내 대학을 포함하여 호주, 칠레,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지로부터 64개 대학을 대표하는 70여 명의 경영대학장과 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Education, Research, Collaboration, Career Development, Entrepreneurship의 5개 세션에 걸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올해 제2회 대회에서도 국내외 50여 개 대학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학장들이 교류에 참가하였다.

2일 차인 8월 28일 오전에는 Education, Research, Entrepreneurship의 세 영역에 걸친 일반주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후에 진행된 Case Presentation 특별 세션에서는 6개의 사례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대회를 주최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측은 발표된 사례연구를 모아서 향후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경영사례연구 저널을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북미지역의 Harvard Business Case를 벤치마킹한 아시아판 경영사례연구의 지속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University of Malaya의 경영대학장인 Mohd Nazari Ismail 교수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 경영대학의 부학장인 Sin-Hoon Hum 교수가 NUS의 교과목 개발 사례를 발표한 Education 세션에 참가하였으며, 사례발표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문정변 교수의 "Developing a Social Venture Business Model Using Smart Phone Application: Tree Planet", Anat Zeelim-Hovav 교수의 "The Strategic Value of Agricultural Informatics: Post Adoption Behavior of Family-Size Farms in Korea", 김상용 교수의 "The Leader of Service Innovation: D-Cube City"의 발표에도 참관하였다. 이날 발표된 사례연구에는 이 밖에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김대수 교수의 "Operational Excellence of Korean Hidden Champions", Martin Hammert 교수의 "Home Plus: Riding the Korean Retailing Rollercoaster", 권승우 교수의 "Hansol Paper: Successful Negotiation Case - Founding and Selling PAPCO" 등의 연구결과가 포함되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서 나는 말레이시아의 Universiti Sains Malaysia의 경영대학장인 Fauziah MD Taib 교수와 부학장인 Amirul Sha MD Shahbudin 교수를 만나 양교간의 교류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최종 협정서를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교 간의 학부생 교류는 2015년 봄학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발족시키고 주최하는 APDS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국제화를 추진해 나감에서 참조할만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마케팅 공학의 역할



교수 송 태 호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로 '빅데이터(Big Data)'는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전 사회영역에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슈로 주목받아 왔다. 매 순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축적되어 어떻게 이들을 활용할지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 더불어 이는 2014년 현재에도 중요한 이슈이며 마케팅 실무 및 연구 분야에서 주요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래로 시장 데이터와 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장 분석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선도하고 있는 '마케팅 공학(Marketing Engineering, Marketing Modeling, Marketing Science)'은 마케팅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문 분야라 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모형과 실무 사례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세계적으로 마케팅 공학의 연구와 실무를 주도하는 가장 권위 있는 연구 교육 기관 중 하나인 MSI(Marketing Science Institute)는 최우선 연구 주제로 빅데이터 관련 주제를 단골로 선정하고 있다. MSI에서 선정하는 최우선 연구 주제는 전 세계 마케팅 공학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의 연구 방향 또는 최신 동향을 선도하기 때문에 마케팅 공학의 최신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써 활용할 수 있다.

최근 MSI는 2014~2016년 최우선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방대한 데이터 환경을 위한 마케팅 분석 도구의 개발(Developing Marketing Analytics for a Data-Rich Environment)'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새롭게 출현한 방대한 데이터 환경이 기업에서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주요 의사 결정을 향상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이를 과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향상된 분석 방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방대한 데이터 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의 확보를 통해 기업은 더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MSI의 빅데이터 관련 최우선 세부 관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방대한 데이터 환경에 어떤 분석 기법이 필요한가?
어떻게 기업은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해 분석 기법을 향상할 수 있고, 어떻게 분석 기법을 기업 전체에 실현할 것인가?
[분석 기법 개발과 전파]
- 2 미래 마케팅 공학과 예측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기업은 새로운 분석 기법의 능력을 평가할 것인가?
[분석 기법에 대한 평가]
- 3 방대한 데이터 환경 속에서 마케팅 활동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추론할 것인가?[연구 방법론]
- 4 새로운 기법은 어떻게 비정형 데이터(소셜 미디어와 같은)로부터 더 많은 새로운 통찰/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가?[응용]
- 5 방대한 데이터 환경 속에서 실시간 의사 결정 위해 어떤 기법이 사용될 수 있는가?[응용]
- 6 더욱 효과적인 고객 수준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수준의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응용]

이상의 6가지 세부 연구 주제는 방대한 데이터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법, 그것에 대한 평가 방법, 새로운 연구 방법, 그리고 실시간 의사 결정 등의 응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 연구 주제를 통해 향후 빅데이터와 관련된 마케팅 공학의 흐름이 새로운 기법의 개발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분야와 실무 분야의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마케팅 공학의 흐름에 맞춰 빅데이터 관련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고객 검색 활동'과 관련된 마케팅 공학 연구의 일부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공학 분야의 한 연구는 3개월간의 200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대상으로 최신 데이터 필터링 기법과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 활동 데이터(인터넷 브라우징, 거래 기록 등)와 판매 업체의 데이터(속성 구성, 가격 정보 등) 통합을 통해 합병된(Merged) 고객 활동 데이터를 구성하여 고객 검색 활동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로는, 내구재 제품 구매의 경우 고객 검색 활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좀 더 집중되고 정보 탐색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 기존의 조사들은 고객들이 구매 전 평균 2~3회 검색을 한다고 한 반면, 이들의 연구는 내구재 제품의 구매를 위한 경우 구매 전 평균 14회의 검색을 하고, 특히, 검색 시 중요한 속성에 국한하여 검색을 하는 상당히 제한되고 집중된 검색 패턴을 보여준다. 검색 활동 내용에서도 정보 습득을 위한 패턴을 보여주는 데 분석 결과 검색 활동의 30% 이상이 이전에 검색했던 항목을 또다시 검색하여 내구재 구매를 위한 정보 검색 시 고객들이 정보 습득에 집중하려 함을 알 수 있다. 검색의 속도 면에서도 구매에 근접할수록 검색 간의 시차가 점점 줄어드는 검색 'Lock-in' 효과도 증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빅데이터 이전의 일반적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고객 검색 활동의 현상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보된 분석 방법을 통해, 새롭고 좀 더 구체적인 고객 검색 활동 성향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와 같이 점점 더 구체화된 고객 활동에 대한 통찰은 실무적으로 고객 세분화, 고객 표적화 그리고 더 개인화된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결국, 빅데이터 또는 방대한 데이터 환경의 도래는 마케팅 공학 분야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좀 더 활발한 연구와 실무에의 적용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공학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경영학 또는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통계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시도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기법의 분석 방법 및 응용 방법을 개발해 가야 할 것이다.

‘경영학과’ 길을 묻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는 역사와 전통에서 그러했듯이 재학생들과 동문 선배, 교수들이 힘을 합쳐서 동반·상생·협력의 길을 찾아나가기에 할 것이다.



교수/학과장 김 종 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으로 첫 인연을 맺은 지 어언 35년, 이제 중년이 되어 교수로 18년째 재직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그 건물에서 강의받던 자신이 현재 그 강단에서 강의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인 건물을 존중하지만, 우리에게 가끔 비가 새는 그저 낡은 건물일 뿐이다.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건축 문화가 아쉽기만 하다.

경영학은 합리적인 실천과학으로 경영의 존속·유지·발전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경영 즉,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대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되돌아보면, 뭔가 커다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경영학을 교육하고 경영학을 연구하는 명문대학의 경영학과가 30년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에 이유를 만들어보지만, 교수로서, 동문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지방대학이라는 핸디캡은 있었지만, 집안 형편상 지방대학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수한 학생들이 있었고, 서울을 동경하면서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이 깊었던 선·후배, 동기들이 있었다는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최근 교수로서 학생들을 대면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과 주인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초등학교 때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단체관람 했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 당시에는 홍보용 영화여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게 되는 계기는 되었지만 깊은 내용은 느끼지 못하고 줄거리만 보게 되었다. 비슷한 줄거리로 만든 한국 영화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명량해전에서 300여 척의 적 함선을 12척의 배로 자신을 던지며 적을 당당히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몇 번이나 탄복하게 했다.

군사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투였다. 오로지 심리전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명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전정신을 가르쳐준다. 선배들이 그러했고 우리 재학생들이 그러하면 우리는 여전히 명문대학 경영학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재직 중에 만드신 멋진 경영관을 지어서 후배들에게 더욱더 발전된 경영학과의 모습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져본다.

또 한 가지의 안타까움은 우리 모두의 주인의식 부족을 지적하고 싶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는 과연 누가 주인인가? 국가인가? 지자체인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교수인가? 학생인가? 과거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토론이 흔히 있었다. 민족주의와 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80년대에는 주인의식을 학생들 스스로 고취해 왔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는 주인은 경영학과 학생들과 동문 그리고 교수님들 모두이다. 재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입신양명해야 하고, 동문 선배들은 모교와 후배들에게 깊은 애정과 열정을 나눠 줘야 한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훌륭한 강의와 연구로 학과의 명성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과 애교심을 갖도록 격려해 주고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훌륭한 멘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수없이 오르내리는 금정산 등산로가 부산대학교, 우리 소유의 땅인지 모르고 오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처럼, 학생들의 취업률과 선배들의 사회진출 성공사례를 타인의 일처럼 느끼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영학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최근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서 자본가와 경영자를 위한 학문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기업경영에서 경영성과는 반드시 추구돼야 하지만 성과지표는 다원적이어야 한다. 생산성,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혁신성, 만족성, 고객지향성도 기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경영윤리를 실천하며 종업원과 고객, 하청업체와 지역사회가 동반·상생·협력해가는 경영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는 역사와 전통에서 그러했듯이 재학생들과 동문 선배, 교수들이 힘을 합쳐서 동반·상생·협력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나는 교수로서, 선배로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와 미래가 구성원들의 동반·상생·협력의 장이 되어갈 수 있도록 지속하여 중심에서 서서 노력해갈 것을 다짐해본다. 지난 2년간 학과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해왔다. 무엇이 학교를 위한 길이고, 학과를 위한 것인지? 이것을 경험 삼아 나의 교수로서의 여정을 꾸려갈까 한다.



교수 김 종 기

전자상거래에서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는 원인과 보호반응에 관한 연구: 주인-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김종기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진성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참여



연구의 배경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에 오프라인상에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 정보는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정적인 형태로 저장·관리되어 왔지만 인터넷이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고객의 개인 정보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손쉽게 이동·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글로벌화가 가중되고 있는 경영 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볼 때 기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순기능적 변화로 인식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는 역기능적 변화로도 인식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정부는 2011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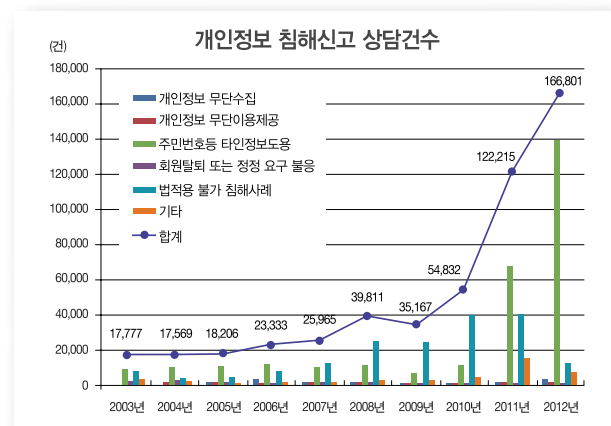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하여금 자기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행동을 야기하며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시킬 수 있는 비용적·시간적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만든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보다 다각화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보호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는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연구 질문 1 :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연구 질문 2 :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 그림 1 〉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주인 - 대리인 이론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도출하였다.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은 한 사람(주인)이 상호 합의된 계약에 따라 자신을 대신하여 일련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으로 오늘날 거래 행위가 존재하는 모든 계약 관계에 적용 가능하다(Eisenhardt, 1989; Jensen and Meckling, 1976).

주인-대리인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목표 불일치 문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인의 행동을 강요할 수 없는 문제, 대리인에 대한 동기부여 문제, 대리인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 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Akerlof, 1970; Pavlou et al., 2007; Rothschild and Stiglitz, 1976) 특히 거래 주체 간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Arrow(1985)는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각각 숨겨진 정보(hidden information)와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숨겨진 정보는 주인이 알기 어려운 특정 대리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말하며 이는 주인-대리인 관계가 체결되기 이전에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대리인을 선택하고자 하는 주인에게 있어 어려움의 문제가 된다(Akerlof, 1970). 어떤 대리인이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대리인인지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인은 대리인의 선택에 있어 잘못된 선택(역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Wilson, 1980).

숨겨진 행동은 특정 대리인이 주인과 약속된 행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인이 확인할 수 없는 대리인의 행동을 말하는데 이는 주인-대리인 관계가 체결된 이후에 주로 발생한다(Jensen and Meckling, 1976).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은 대리인에게 약속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과의 약속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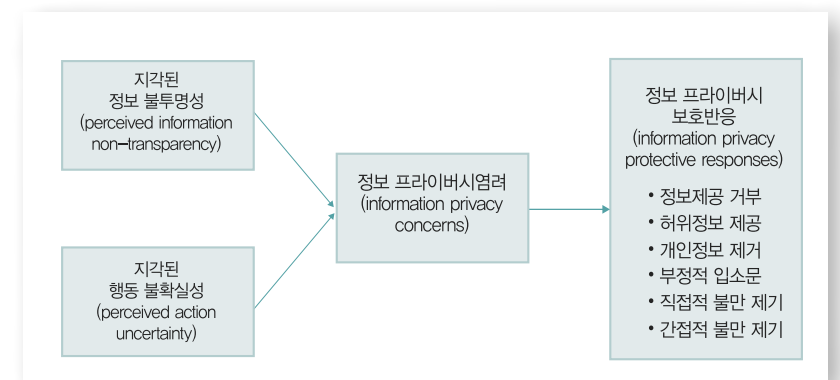
숨겨진 정보와 숨겨진 행동은 주인과 대리인 간에 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발생하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컨대 주인이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대리인과 계약함으로써 숨겨진 정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기회

주의적인 태도로 인한 숨겨진 행동에 관한 문제는 계약 관계에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숨겨진 정보와 숨겨진 행동에 대한 문제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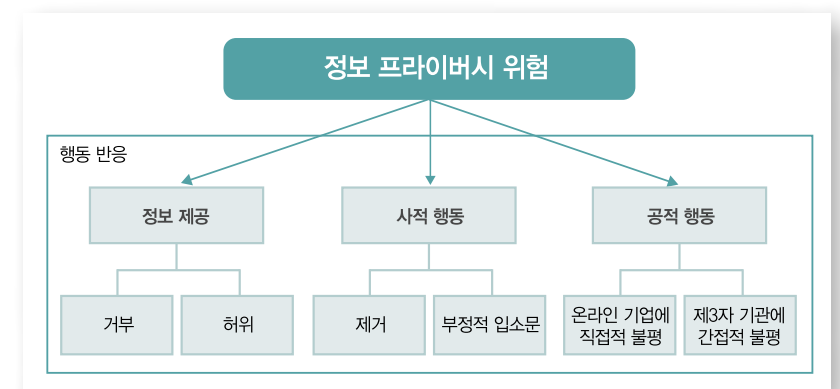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의 지각된 정보 불투명성과 지각된 행동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불평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의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Son and Kim(2008)은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만이 소비자의 불평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인터넷 사용자의 보호반응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법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그림 2 〉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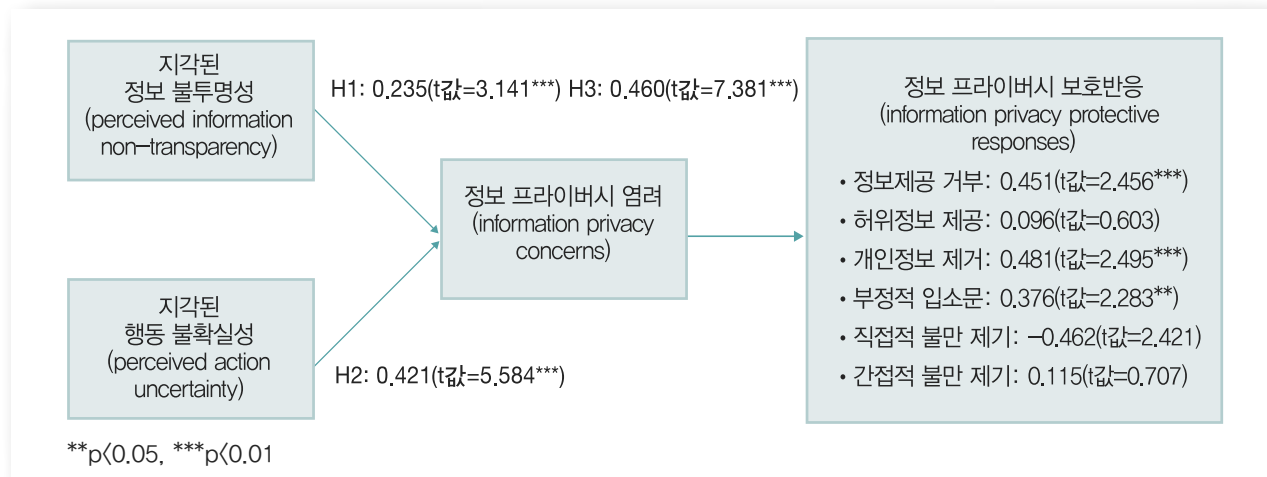


〈 그림 3 〉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IPPR)에 대한 분류 (Son and Kim, 2008)

연구의 결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두 달여 기간 동안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96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176부의 설문을 이용해 실증분석 실시하

였다. 분석도구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SPSS 18.0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SmartPLS 2.0을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 그림 4 >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첫째, **지각된 정보 불투명성**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와 웹사이트 간에서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부족은 어떤 웹사이트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음을 말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쉽게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도 포함되는데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확히 인식되지 못한다면 지각된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여전히 높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지각된 행동 불확실성**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처리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절차를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 사용자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가지게 된다.

셋째,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웹사이트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웹사이트에 대한 부정적 입소문을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첫째,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돌아올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사이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에서 행해지는 행동일 것이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웹사이트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사이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웹사이트와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웹사이

트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거하려는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의 보호반응은 온라인 기업에게 커다란 비용적인 부담을 갖게 한다. 사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에 비해 5~6배 정도 더 많이 든다(Fundin and Bergman, 2003)는 것을 감안할 때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거는 온라인 기업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셋째,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웹사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RP(1986)의 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상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 만족하는 고객은 4~5명의 친구나 동료에게 자신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전하는데 반해 특정 기업에 대해 불만이 있는 고객은 8~10명의 친구나 동료에게서 자신의 불만을 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 인터넷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입소문은 온라인 기업의 명성과 잠재적 매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온라인 기업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넷째,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다고 해서 웹사이트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RP(1986)의 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상에서 특정 기업에 불만이 있는 고객 중 단지 4%만이 기업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머지 96%는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불만을 기업에 직접적으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likelihood of success)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Singh, 1990).

다섯째,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다고 해서 자신의 개인정보 일부를 허위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웹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 일부를 허위로 제공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제공하는 것이 물품 배송이나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다고 해서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제3의 기관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의 불만 제기 행동을 유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불만을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제3의 기관에 제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자신을 불만을 제기하겠지만, 반대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비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인터넷 사용자가 인식하는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 성공 가능성(likelihood of success), 비용과 이득에 대한 가치(value of cost and benefit) 판단은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에 있어 강한 동기가 되며(박지훈, 2008),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은 공적 행동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사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 첫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한 원인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은 온라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의 향후 연구 방향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이며
- 둘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로 인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에 대한 분석은 온라인 기업의 고객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재가 미래다

人材



부산인적자원개발원
기획조정실장 왕 제 필

부산은 고도 성장기에서 한국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했지만, 80년대 이후부터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부산경제를 견인 할 인재의 부족일 것이며 이것이 부산의 장기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연간 인재 총 유출 규모는 10,000명에 이르며, 경제적인 손실 또한 매년 2조 7천 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산시의 전략 산업과 인프라는 외지 인재에 의해 운영 되고 부가가치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강소기업들이 많으나 인재부족으로 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인재유출 현황 및 경제적 효과



인재가 경제를 살리고,
인재가 문화를 꽃피웁니다.
인재가 기업을 만들고
인재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부산이 인재가 머무는 도시, 인재가 찾아오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식서비스 산업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의 지식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풍부한 대학교육·연구 기반을 구조 조정하여, 세계적 대학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교육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인력 부조화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및 환경조성도 필요합니다. 듀얼시스템을 비롯한 산학협력 교육과 대학-기업 상시 인력·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즉, 대학과 산업이 끈끈히 연계하여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신 산학협력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부산에 세계 100위권의 특화된 글로벌 대학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재가 모여들고, 청소년 시기부터 지역을 사랑하는 창의적 인재가 풍부하게 길러지는 부산이 되기 위해 민·관·시가 하나가 되어 미래 창의 인재육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창조적 인재가 넘쳐나고, 세계적 인재가 찾아오고, 그 인재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경제권을 이끌어갈 역동적인(dynamic) 부산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Interview

AMP 64기 김성관 사무국장



|주|스카이마크솔루션 대표이사

AMP(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업/행사/교우 간 관계)

우선 부산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은 1982년에 개설된 이래 올해 64기에 이르기까지 3,4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고 있으며 그동안 6개월 과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년 과정의 두 학기로 구분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어느 때보다 더욱더 다채롭고 내실 있는 강의와 행사로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MP 수업은 매주 목요일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이루어지며 경영학과 교수님들과 외부 저명강사특강의 조화로운 커리큘럼으로 짜여졌습니다. 최고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기관리에서부터 리더쉽과 교양, 그리고 무엇보다 최신경영이론과 실제에 대한 교육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원우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페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업시찰 및 골프, 와인, 음악, 등의 특별하고 럭셔리한 행사와 사랑의 밥차 등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행사 또한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4기에서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에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3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AMP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 내면 그저 만족에 안주하는 습관이 배었지 않나 싶어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 책에서 작가 세스고딘은 실패를 하더라도 높이 날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기업의 리스크를 두려워하여 안전하게 낮은 자세로 날고 있는 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오랫동안 굳어진 ‘안전하게’라는 저의 생각의 틀을 깨어보고 싶었고, 그 방법을 각 분야에서 노력해 오신 훌륭한 경영자분들과 함께하며 그분들의 경험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이는 지인의 추천으로 입학하게 된 부산대학교의 최고경영자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도약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기에 매우 충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함께 하는 모든 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AMP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무국장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원우들에게 있어 진정한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적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장님 이하 집행부의 이견조율을 통하여 결정된 일을 추진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64기 원우들이 보람되고 즐겁게 배우고, 나아가 졸업 후에는 동기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역할입니다.

우리 64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첫 기수로서 그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1학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열정으로 뚝뚝 뚝뚝 열심히 참여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중서 원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우리 기수들은 최고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 줄기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더욱더 좋은 강의와 행사로 우리 원우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나갈 것이며 동문회 행사의 참여를 통하여 효원 경영인으로서 자질을 하나씩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학마다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아도 부산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의 우월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로 뚝뚝 뚝뚝 동문과 잘 짜인 프로그램은 부산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경영대학원 원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과 직원분들의 맨파워(manpower)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우들은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 경영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하여 넓은 포부와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훌륭한 후배들과 동문으로서의 인연이 된 것에 대하여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크고 담대한 꿈과 실천력으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효원 경영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화건설

취업수기

끊임없이 고민하면 길은 보인다!



금융공학 07 양 승 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건설 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금융공학과 07학번 양승현입니다. '효원경영'에 실게 될 취업수기를 부탁받으면서 과연 내가 후배분들에게 취업할 때 '전략이 뭐다',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 '뭐가 옳다'라는 정의식의 조언을 할 역량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이야기들을 그저 솔직하게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 나오게 될 이야기는 취업준비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생각이며, 제가 경험했던 일부 회사들에게만 국한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읽고 있는 후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면서 본인에게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실질적인 취업시장에 발을 내딛으면서

저를 포함한 일반 기업에 취직을 목표로 삼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보통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심각하게 진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스펙이라도 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에 여기저기 정보도 알아보고, 뭐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인턴을 하거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토익점수와 영어 스피킹 점수를 높이고는 합니다. 그리고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여러 포털 사이트를 생활화하면서 하반기가 되면 '묻지 마'식의 서류접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첫 직장이 될 기업과 크게는 직무를 선택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시 3학년으로 돌아가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만의 피라미드를 세워라

고학년이 되고 취직할 때가 되어 요즘 저학년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곤 합니다. 제가 저학년 때는 놀기 바쁘고 취직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생활에만 충신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1학년 때부터 토익을 공부하고, 각종 자격증에 해외활동, 해외봉사, 인턴, 각종 대회 등 이력서에 한 줄이라는 스펙을 넣기 위한 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기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세워라!" 결국, 여러분이 취직하게 되고, 첫 직장이 되는 평생직장이 되는 간에 취직 할 기업은 오직 한 곳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했던 모든 활동이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연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연 은행에서의 인턴과 홍보단 활동이 은행이 아닌 제조업이나 기술직에서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난이도에 따라 적게는 1달, 많게는 6개월 ~ 1년을 투자하면서까지 만 각종 자격증이 과연 여러분이 취직하게 될 일반 기업의 인력팀에게 얼마나 큰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단 한 군데만 정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직업군, 직무 정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서류접수를 하게 될 시점에서 이때까지 쌓아온 스펙과 각종 대외 활동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강력한 한방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금융공학 전공이었지만, 은행권과 증권 쪽에는 별다른 흥미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중공업이나, 조선, 건설사의 재무팀에서 일하고 싶었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만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충무팀을 구성하여 학생회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했던 활동과 함께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선박과 중공업에 관련된 금융학회 스터디도 꾸준히 하며 다양한 재무 포럼에 봉사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소요되는 재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땀과, 재무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본조달과 관련된 대회를 딱 하나만 참가하여 입상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이 서류나 면접에서 제가 재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스펙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의 경중을 냉정하게 판단해보면서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비슷합니다. 저는 휴학을 최소화해서 한 학기라도 단축할 수 있다면 이점 역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휴학을 통해서 이력서에 '묻지 마'식의 줄만 늘이기보다는 딱 하나의 피라미드만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회사에만 국한될 수 있겠으나 회계사, 변호사, 기술직 등의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일반 기업에 취직을 생각하신다면 서류전형에서 소위 스펙은 크게 변별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합격의 길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군과 직무를 선택했으면, 이제 보통 서류전형과 인·적성 시험, 면접 전형을 통해서 최종합격을 하게 됩니다.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 같아서 서류전형과 면접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들려 드리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

절대로 컨트롤+C,V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상, 하반기를 통틀어 보통 3, 4월 9, 10월 등 2개월간 동안 취준생들은 그저 자기소개서만 쓰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공채라는 취업의 특성 때문에 한국의 모든 기업이 각자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서류접수를 앞에서 말한 취업시즌에 동시 다발적으로 받게 됩니다. 묻지 마 지원은 체력과 성취감만 앗아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직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전공공부를 하고 소위 스펙을 위해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 오면서 정작 취직의 첫 관문인 자기소개서에 할애하는 시간은 컨트롤+C,V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연히 서류통과의 확률을 높이기 많은 곳에 지원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으나, 목표로 했던 직무에 혹은 관련된 직업군만 하더라도 기업을 20개 정도로 추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종으로 가고 싶은 기업이 3~4개는 된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취업시즌의 반 학기 전부터 충분히 자료조사를 하고 신문스크랩을 하는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개년도의 자소서 항목을 검토해보며 해당 기업에 맞는 맞춤형 스토리를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지원을 하게 될 때, 자기소개서에 정말 공을 들여 시간을 할애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서류 제출기간을 모두 쓰면서 자기소개서에 집중하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붙여 쓰기 해야 한다면, 지원 동기 라던지 그 기업의 인제상 정도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수정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는 그 기업에 관한 기사성의 아부가 아닌 Royalty가 잘 녹아있고, 선택한 직무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드러나며, 스스로 기업의 인제상에 부합된 인재라는 내용이 간결한 문체로 쓰여야 합니다.

누가 당신을 뽑는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임할 때,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여야 합니다. 좁게는 인사팀과 넓게는 면접에 참가하게 될 그 기업의 임원이 결국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결정짓게 됩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 임할 때, 자기가 그 기업을 조사한 자료들과 달달 외우다시피 한 자기 PR 등으로는 면접전형에서 호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면접자의 질문에 두괄식으로 답하고 간결하게 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짧은 순간이겠지만 질문에 대한 면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용 관련 면접관과 이야기도 해보면서 알게 된 것이 피면접자의 태도를 가장 중요시 본다는 점입니다. 눈빛 손짓 말투 그리고 다른 피면접자들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을 때까지의 태도 하나하나까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면접에 임하는 태도가 점수로 연결된다고 하니, 자신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면접에 임하시길 당부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나열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취업준비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여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로 취업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셔도 좋고 자기소개서에 관한 참고자료 또한 보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의 취업에 웃는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mail, didehfdl5@naver.com

POSCO Scholarship

합격수기



뜨거운 여름을 보내며



경영학과 10 박 세 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산학장학생(POSCO Scholarship) 8기에

최종합격한 경영학과 10학번 박세영입니다.

여름방학인 지금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경영대학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간을 내어 포스코 산학장학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저의 합격과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아는 상투적인 말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명확한 정보들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산학장학생(POSCO Scholarship) 제도란?

‘포스코 스칼라십’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2학년 2학기 재학생들(하반기), 또는 3학년 1학기 재학생들(상반기)을 대상으로 합니다. 스칼라십 제도에 합격한 학생들은 3, 4학년 여름방학에 현장실습을 하고 4학년 때 글로벌챌린지를 수행한 후, 소정의 자격요건(토익스피킹, 한국사 등)을 충족할 시에 별도의 전형 없이 입사하는 것을 전제로

매 학기 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 신분일 때 장학금을 받으며 포스코 입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미리 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고, 남은 대학생활을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방법 및 학과 모집단계

포스코 스칼라십 제도는 개인이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포스코에서 서울 내 유명대학들과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에 자사가 원하는 스칼라십 선발 인원을 통보하면 각 대학 및 학과별로 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하반기 모집은 10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9월 중순쯤 되면 매일매일 귀찮더라도 경영대

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형 모집이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과에서 공고를 내어주면 그것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과 단계에서는 학점과 어학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학과장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2명(제가 합격할 당시)을 선발하게 됩니다.

포스코 1차 서류전형 단계

학과장님의 추천을 받았다면, 다음은 포스코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서류전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채용에서 대부분 공지사항은 이때부터 지원자의 e-mail로 발송되기 때문에 e-mail을 평소에 잘 점검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학과장 추천을 통해 포스코 스칼라십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여러분에게 포스코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라는 e-mail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학과에서 모집할 당시 제출했던 서류들과는 완전히 별

개입니다. 신상 정보 및 자격사항 등을 입력할 때는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평점, 어학 성적, 자격증, 봉사활동, 기본 신상정보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900자씩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후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모든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없이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포스코의 인재상을 잘 파악하여 은근하게 자신의 이야기가 포스코의 인재상과 부합하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포스코 2차 실무면접 단계

서류에 합격하였다면, 서울에 있는 포스코센터에 방문하여 2차 실무면접을 보게 됩니다. 3차에 걸친 포스코 스칼라십 전형단계 중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실무면접은 AP, GD, 인성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P는 Analysis&Presentation의 약자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경영사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각자의 A4용지에 수기 작성하게 됩니다. 후에 이 A4용지를 바탕으로

로 6분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경영사례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때는 수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적절한 요소마다 전공지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발표할 때는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GD는 Group Discussion, 즉 그룹토론입니다. 이때는 6명의 지원자들이 한 조가 되어 토론을 펼치며, 별도의 사회자는 없습니다. 2명의 면접관이 40분간 지원자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며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펜을 돌리고 다리를 떠는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평가합니다. 주제는 매번 달라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어떤 주제가 나오던 여러분들은 토론을 이끌고(주도성), 의견을 열심히 피력하고(적극성),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등 토론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면접에서는 1분 자기소개를 한 후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편안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말하는 태도나 목소리, 성격까지 말 그대로 지원자의 인성을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사실대로 썼다면 인성면접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포스코 3차 임원면접 단계 (최종단계)

실무면접을 통과했다면 이제 최종 임원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면접과는 다르게 임원면접은 3명의 임원진과 3:1로 약 15분간 대면하게 되고, 이 단계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매시간 질문이 달랐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소개서가 흥미로운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한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역사의식을 평가하는 질문, 시사상식을 물어보는 질문, 가치관을 물어보는 질문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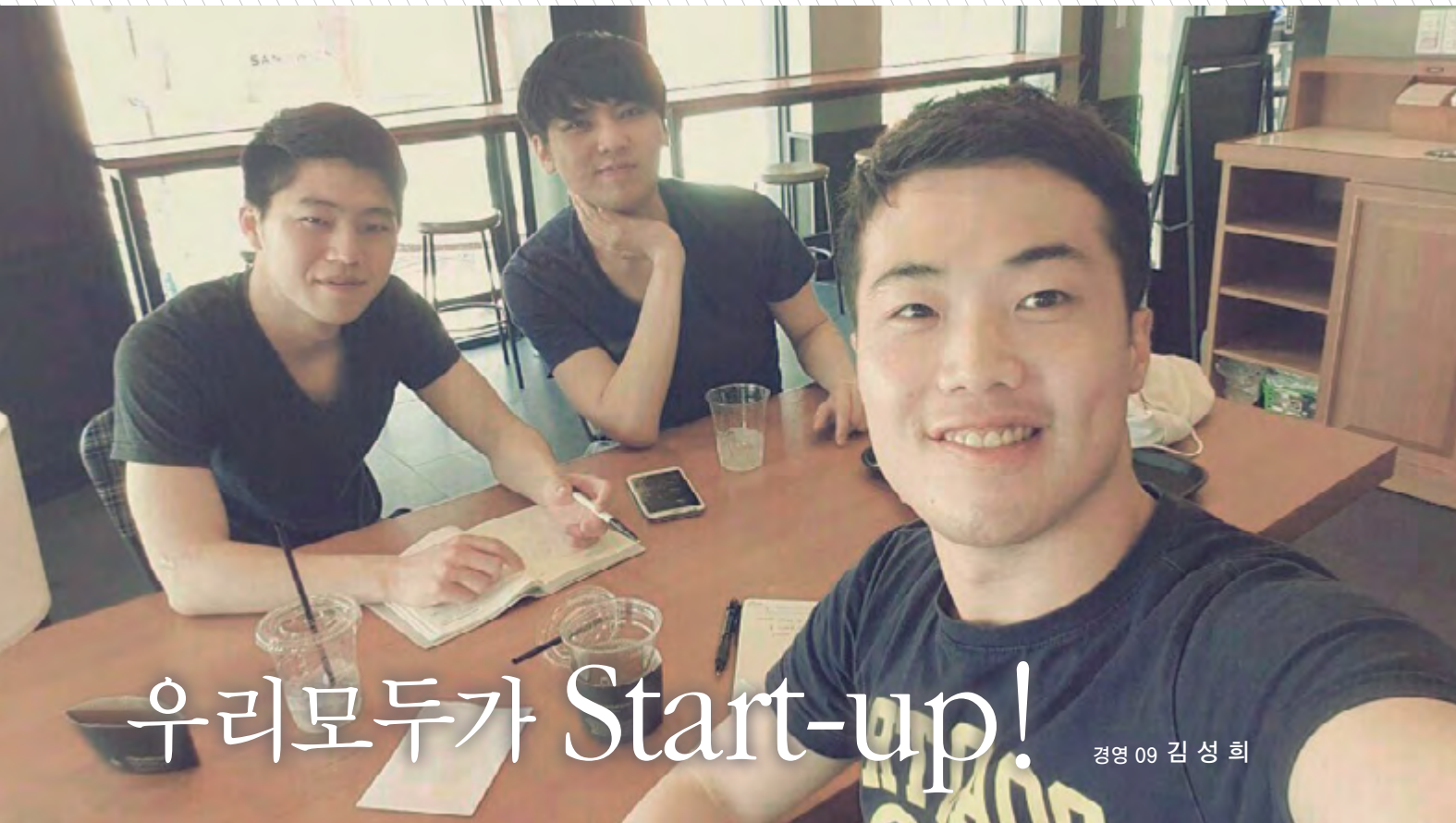
저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한 질문이 3~4가지 정도, 그리고 이름의 뜻,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스칼라십을 위해 준비한 사항, 의사결정을 내릴 때의 성향,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최근에 읽은 책 등을 질문받았습니다. 임원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요구하는 질문이 분명 나오고, 흔히들 알고 있는 압박면접도 일부 이뤄집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아는 만큼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다음에 습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다면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어떤 일이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열정적으로 준비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포스코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기업들에 대한 취지도 마찬가지겠지요. 후배들이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찾아보고 하나라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수의 기업이 원하는 뛰어난 인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조언이 필요한 분들은 fifafila@naver.com으로 언제든지 메일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과 모집단계

포스코 1차
서류전형 단계포스코 2차
실무면접 단계포스코 3차
임원면접 단계



경영 09 김 성 희

글을 쓰기에 앞서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작년부터 약 10개월간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회사를 나온 후 계속해서 창업의 꿈을 안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잠깐 경험해본 이야기와 그로부터 얻은 지극히 주관적인 제가 느낀 점을 전달하는 데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경영학에서는 HRD 쪽에 관심이 있었고, 이벤트나 전시 기획 같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따분한 말 같지만,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도서관에서 이벤트의 천재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일본의 한 이벤트 기획업체에서 메가 이벤트를 기획하는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을 정말 세밀하게 담아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딱연히 이러한 것을 보고, 좋아하기만 했는데 정말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구나!'하고, 사실 책 한 권 읽었을 뿐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그 세계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제대하였고, 저는 제대한 지 이틀 만에 직원교육을 주 업무로 하는 대기업 계열사 중 한 곳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다녔으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과 회사를 적어도 20여 년은 넘게 다니신 분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기에 제가 입대 전 희망했던 진로를 간접적으로 아주 알게나마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 이건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데?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나? 방향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복학해서 한 학기를 다니게 되었지만, 다시 휴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던 지난 2년간 그토록 목말랐던 공부, 강의, 대학생활이었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를 모르니 3일 다니자마자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제 얕은 의지로 하는 공부는 오히려 대학생활을 하는 저 자신에 환멸을 느끼게만 하였습니다.

사실 휴학을 바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후 저는 소개로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을 하던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고, 여러 시간 고민의 날들 후에 저는 새로운 경험과 학업에 대한 의미, 재미를 찾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3명으로 이루어진 스타트업 회사였고, 제가 들어간 후 네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에서 신분상승을 하여 유통팀장이 되었지만, 팀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팀장이자 팀원, 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제가 최초로 경험해본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 얘기가 나오네요. 아무튼, 스타트업에서 제가 맡은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일보다 어려운 일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겐 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회사에는 그전의 선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배우면서 일을 하나 둘 해나갔고, 회사가 참가한 SK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에서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있던 스타트업 회사에 더 큰 투자가 진행되었고, 굉장히 단기간에 어느 정도 성장이 보장되고, 회사의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갖췄던 능력 이상의 결과들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운이 좋았고 오히려 그 운에 제가 편승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안정된 시점에서 저는 또다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일을 해보고 싶다. 내가 직접 만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대기업이라도 있다가 나온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주체적으로 일해본 경험과 그 경험에서 비롯되어 정말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 많은 무형자산을 얻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올해 4월부터 또 다른 곳에서 스타트업을 경험했던 친구와 함께 제 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뛰고 또 걷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안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레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레이스를 해나가며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라는 것이 처음에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과 그로 얻게 되는 부(富)와 같은 어떠한 정량적 결과물이라고 보았다면 지금은 과정에서 오는 일의 재미와 함께 하는 이들과의 즐거움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스타트업의 일에는 어려움과 막막함이 대부분이며, 장밋빛 미래는 커녕 불안한 하루하루를 버티



나지만, 선배 창업가들의 모습을 보며 '아 망하더라도 죽으란 법은 없구나.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는 끈기 혹은 오기와 의미 있는 인생 혹은 꿈만 남았지만 살만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현재까지 스타트업을 보고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원래는 창업에 관련한 글을 부탁받았으나, 사실 전 창업에 대해 그리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은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제가 창업이란 세상으로 오기까지의 일들을 구구절절이 적어봤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시면 수많은 성공한 창업가들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이러한 창업의 세상이 있다는 것, 모두가 취업을 바라볼 때 창업이라는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창업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크게 사람, 자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본, 기술이 모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혹은 서비스)과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업과 제품, 그리고 고객까지 이 관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람, 자본, 기술을 끌어다 만들어낸 기업에서 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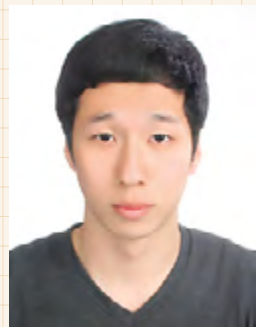
서두에 저의 몇 년간의 인생 얘기를 풀어놓았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실무, 현장에서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느끼는 게 많고, 그것이 체질에도 맞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경험에서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론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배우기 위한 실무의 경험은, 오히려 이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줬고, 저는 앞으로 이론과 경험을 병행하며 제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수많은 선후배, 동기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나도 창업이나 한번 해볼까 하기보다는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더라도 저러한 고민의 결과로 인생에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감히 창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권한다기보단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짧은 창업에 대한 소견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동 수기

농활의 백미는 '작업'과 '참'



경영 09 김 문 수

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학생회장 09학번 김문수입니다. 저는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7박 8일 동안 경영대학 학생들과 함께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마을에서 시행된 농활에 참여하였습니다. 농활이란 '농촌 활동'의 줄임말로써 농민과 학생의 연대활동을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농민 학생연대활동'의 의미와 일손이 필요하신 농민분들을 도와드리는 '농촌봉사활동'의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이번 2014년 농활에 총 25명의 학생과 '부산대 레전드 경영 농활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농활은 대대로 신입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저는 25세에 비로소 처음으로 농활을 떠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장이자 농활대의 대표이다 보니 마을 일이나 같이 참여한 후배들에 대한 책임감이 앞서 설레는 마음으로 농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자급자족하며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작업반장, 요리반장, 해충박멸반장, 신발 정리 반장, 청소반장 등 모든 구성원이 한 가지 이상의 담당을 맡았고, 이 덕분에 개개인 모두 주도적으로 농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농활에서 느꼈던 농촌 생활의 백미는 '작업'과 '참'이었습니다. 하루에 2~4가지 작업이 할당되는데, 작업반장을 맡은 08학번 김정민 선배가 매일 아침 여러 사항을 고

려하여 작업팀을 나누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 덮기, 뽕나무 자르기, 비료 나르기, 나뭇가지 옮기기, 토마토 수확, 매실 수확 등 여러 작업을 하였지만, 다행히 농활 기간 중 날씨가 선선하여 일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관계없이 힘든 작업도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힘들었던 작업은 뽕나무 자르기였습니다. 뽕나무에서는 '오디' 열매가 자라는데, 이 열매로 인해 뽕나무에는 많은 해충과 벌레들이 서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마리의 해충과 모기들이 달려들어 몸 전체에 토시와 수건으로 완전무장을 하며 작업을 했습니다. 힘든 작업이 끝난 뒤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참'이었는데요. 푸근한 시골 인심이 느껴질 만큼 저희를 위해 쥔 감자와 단팥빵, 수박, 미숫가루, 음료수 등 많은 먹거리를 주셔서 모두가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족구, TV 시청, 보드게임, 카드게임 등 다양한 놀이를 하며 꿀 같은 휴식을 보냈습니다. 휴식을 취하다가 9시 30분이 되면 다들 마을회관 거실에 모여앉아 작업팀별로 그날 있었던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서로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하여 농활에 참가하였던 25명의 경영대 학생들 모두에게 불평 없이 맡은 일을 곳곳이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서로 힘이 들 땐 도와주고 믿고 의지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7박 8일간의 시간 또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며 배려하는 법과 존중하는 법을 배운 우리 경영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길 기대하며 농활 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PNUBIZ Global Challenger 경진 대회 입상 후기

세 번의 노력 끝에 얻은 값진 성취

블루오션팀 : 한송이, 성하라



경영 11 성 하 라

경영대학에서 글로벌 챌린저라는 대회를 주최한다는데
우리도 한 번 해볼래?

해외로 탐방할 수 있는 대회네. 좋다 해보자

2011년 갓 입학한 우리가 교내에 전시돼있는 대회 홍보 포스터를 보고 나눈 대화이다.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1학년 때 본선에서 비록 탈락했지만,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내년에 다시 도전하자고 다짐했었다. 그렇게 2012년 1인 창조기업이라는 주제로 다시 도전했지만, 이번엔 서류심사에서 떨어져 발표조차 하지 못하는 슬픔을 겪었다. 하지만 2014년, 우리가 1학년 때 처음 가졌던 그 열정으로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대상이라는 값진 상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 도전하는 만큼 우리는 주제 선정에 그 어떤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교수님들께 따로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선배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피드백을 받았다. 그렇게 주제를 정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정하기를 몇 차례나 반복한 후에야 지금의 '일본의 에코타운의 한국형 도입'이라는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양한 분야 중 우리 팀은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활동에 대해 서로 많은 관심을 가졌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고 기업이 대형화될수록 지구의 환경문제는 심각해졌다. 산업폐기물, 일회용 제품의 사용 등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생산방식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환경문제이다. 20세기 중반부터 이러한 환경문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경영, 그린 이코노미, 에코경영 등과 같은 환경 관련 경제 용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우리는 주제를 선정하던 중 단순히 그린경영을 넘어서 새로운 블루경영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보기로 하였다.

PNUBIZ Global Challenger

2009년, 군터 파울리에 의해 처음 언급된 **블루 이코노미**는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 경제활동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린 이코노미 보다는 다소 좁고 더욱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다. 단순히 비교하자면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린 이코노미에 해당할 수 있지만, 블루 이코노미는 자연생태시스템을 모방하여 쓰레기 0%를 지향한다.

블루 이코노미의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게 된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을지 하는 새로운 물음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단 먼저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어떠한 그린 정책과 경영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에코타운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다. '에코타운'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단위로 환경경영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우리가 추구하는 블루 이코노미와 접점을 가졌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도시단위로 환경정책과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한국의 에코타운의 경우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이 매우 표면적이며 지속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단위의 활성화 된 에코타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모두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 그래서 과연 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에코타운은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던 중 우리는 '에코타운'이라는 용어가 꽤 오래전부터 등장했으며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에코타운은 정부, 기업,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손꼽혔다. 가장 대표적인 영국, 중국, 일본 등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에서 가장 비슷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일본의 에코타운이라고 생각하고 탐방국을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그렇게 예선을 통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친 후, 교수님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칭찬과 격려를 들었을 때 이전 경선에서 떨어졌던 아픔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탐방을 통해 우리가 얻어 와야 할 구체적인 것들과 내용상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많은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다. 한 달가량 남은 탐방을 우리는 계속해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탐방 후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결과물을 얻길 바란다. '외국의 선진 사례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롭다. 게다가 학교에서 탐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므로 많은 학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에 갖길 바란다.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끈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어학연수 수기

경영 13 김 성 현

백문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국제화 시대라는 말이 널리 쓰인 지 10년이 넘어가지만, 한국에서 벗어나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보지 않는 한 그 의미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느낄 뿐이다.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에 갔다 오고 나서야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 또한 호주 어학연수를 가기 전까지 자신만의 좁은 생각에 갇혀 있었다.

1학년 겨울 방학 때 5주간 다녀온 호주 어학연수에서 나는 처음으로 해외로 한 걸음을 내딛어보았다. 기나긴 비행시간과 홍콩에서 비행기가 연착까지 하는 바람에 무척이나 피곤한 채로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한 호주의 첫 인사는 그해 여름 가장 더운 날씨였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퀸즐랜드 대학교로 갈 때와 그 뒤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호주는 역시 무지하게 넓다는 것이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여정의 절반은 하염없이 길박에 나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78배나 되는 이런 땅덩이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이 필수인 걸로 보였다. 시내만 다니는 버스도 배차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간격이라서 한 번 놓치는 순간 약속시간에 맞춰가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 덕분에 브리즈번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항상 일찍 일어나서 30분 전에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습관이 생겼다.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머무른 홈스테이는 대학과 연동된 친절하고 보충된 숙소였다. 대부분 다른 학생들과 달리 나의 홈스테이 가족은 한 살배기 아기를 키우고, 개를 기르는 젊은 부부였

다. 내가 호주로 갈 때쯤에는 호주에서 한인이 죽거나 다른 나라 여행객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등의 뉴스도 나올 때여서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로 겪어본 결과 홈스테이 패밀리들은 물론,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은 친절하고 차별 없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 말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허물없이 대하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퀸즐랜드 대학에서 첫날 OT가 있었고 테스트를 통해 레벨을 나누어 반을 구성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늘 훨씬 일찍 도착해서 같은 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퀸즐랜드 대학의 어학연수 과정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볼 좋은 기회였다. 부산대와 다른 두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많이 와 이번 세션에는 한국인이 보통 때보다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다음으로 많은 수는 브라질 4명, 일본 4명이었고, 중국, 대만, 중동 국가인 오만 등 정말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두 다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하러니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

다. 인상 깊은 점은 브라질 학생들은 영어를 배운지 1년이 안 되는 데도 10년 넘게 영어를 배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도 유연하게 영어를 쓰는 것이었다. 단어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브라질 학생들이 능숙했다. 그중 한 명과 대화하면서 내가 ‘한국 학생들은 파티 같은 걸 하는 문화가 없다.’고 말하니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만큼 브라질은 여럿이 어울려 노는 파티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것이다. 즐겁게 놀면서도 영어를 잘하는 그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효율 떨어지는 교육 문화를 추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생각나는 것은 30대가 넘는 오만 친구인데 그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퀸즐랜드 대학에서 유기농업을 배워 오만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호주로 왔다고 했다. 나를 비롯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어학연수를 그저 학점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왔다고 생각하니 오만 친구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퀸즐랜드 대학 어학 코스의 교사들은 친절하고 잘 가르치는 편이었다. 우리 반 담임인 웨인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수업할 때 수업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등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5주간의 수업이 끝나기 며칠 전 주말에 웨인과 함께 반 전체가 중국식 음식점인 암차에 가기도 했다.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알려주고 암차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아마도 퀸즐랜드 어학 코스에 있는 교사 중에 가장 친절하면서도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교사는 웨인이라고 생각한다.

5주 동안 수업은 주중에만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4시가 되면 모든 수업을 마쳤고, 금요일은 3개의 수업 중 2개만 하고 마쳤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호주의 대자연을 맞이하기 위해 여행을 즐겼다.

주중에는 부산대 친구들과 함께 페리를 타고 브리즈번 중심가를 둘러보고, 주말에는 호주의 론파인 코알라 보호구역, 골드 코스트, 스트라드브로크 섬 등을 다녀왔으며 오스트레일리아 day까지 합

쳐서 3일간 쉬었던 넷째 주에는 시드니로 다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다.

제일 인상적인 풍경은 골드 코스트의 해안가였다. 저녁 늦게 도착해서 해가 진 길고 긴 해안가를 보고 있으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또한, 다 같이 저녁 바다에서 놀며 좋은 추억을 쌓았다. 다음 날 아침에 밝은 햇살이 비치는 골드 코스트 해안가는 정말 장관이었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길게 이어진 해안가가 반짝이며 빛나는 모습은 왜 ‘골드 코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있었다. 스트라드브로크 섬에선 ‘브라운 레이크’라는 갈색빛의 신비한 호수가 눈에 새겨져 남아있다. 흙탕물의 갈색이 아니라 정말 맑고 깨끗한데 갈색빛이 도는 호수를 보니 또다시 한 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드니는 조용하고 도시 대부분이 낮은 주택인 브리즈번과 다르게 시끄럽고 활기차며 서울처럼 고층빌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드니의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 달링 하버를 보고 밤거리를 걸으며, 브리즈번과 전혀 다른 도시의 매력을 느껴보았다. 넓은 땅덩이에서 사는 호주 사람들의 집은 조금만 시외로 나가도 2층 주택이 대부분이다. 뽀뽀이 가득 찬 빌딩 숲에서 살다가 1층에는 넓은 거실, 부엌과 식당, 2층에는 각자의 개인 공간이 있고 집 앞에는 마당, 뒤에는 텃밭과 시원한 수영장인 호수 홈스테이 집에서 살아보니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한국의 고층빌딩과 상가, 주거지가 꼭꼭 눌러 담긴 도시는 편리함과 나름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바쁜 경쟁 위주의 사회와 같이 이루는 부정적인 시너지가 많은 것 같다.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회사와 학교에서 타인과 경쟁하며,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늦게 퇴근한 후 쉬어가는 숙소 같은 장소로 변한 지 오래다. 하지만 호주 사람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시간 맞춰 일찍 퇴근하며 집에 와서 개인의 여가 생활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쉴 땀 쉬면서 재충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 맞춰 바쁘게 사는 것도 좋은 삶의 태도이지만 쉼 없이 너무 태우기만 한다면 끝까지 가기 전에 다 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폐 · 통화정책 연구동아리

F&M

Finance & Money(F&M)

설립_ 2003년 11월

구성_ 경영, 경제, 무역 및 부 · 복수전공

지도교수_ 경제학과 김영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화폐 · 통화정책 연구동아리인 F&M (Finance & Money)의 회장을 맡은 경영학부 10학번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원경영을 통해 선 · 후배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아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사실 95%의 자부심과 5%의 동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M이라는 동아리이름을 듣고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한국의 금리에 대해 공부하는 것으로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혹은 동결이다.’라는 말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국내 · 외 상황과 경제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F&M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에서 주최하는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수업 및 토론 1



수업 및 토론 2



F&M의 구성원은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별로 4주간 토론을 한 후 선배님들이 심사를 통해 피드백 시간을 가집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동아리를 3학기 동안 하면서 개인적으로 토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말쑥씨가 많이 부족했는데, 동아리에 들어온 이후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말에 논리성도 생기고 무엇보다 발표할 때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두서없는 말로 독설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홈커밍데이

(?)을 듣기도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동아리는 한 학기 동안, 한 주에 두 번씩 총 6주로 커리큘럼이 맞춰져 있습니다. 토론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한 주, 한 주 정말 빨리 지나가고, 바쁘게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조원들의 의견이 상충하여 토론장에서 열띤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선의 합의점을 찾았을 때는 6주간의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또한, MT나 상대체전과 같은 행사들이 있을 때는 ‘놀 땀 놀고, 할 땀 하는’ 동아리가 F&M입니다.

끝으로 F&M에 많은 경영대학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상경력

- | | |
|-------------------------------------|----------------------------------|
| 2004 한국은행 통화정책대회 지역예선 우승 | 2008 제5회 부경대 총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스피치상 |
| 2004 제1회 부경대 총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우승 | 2009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우승 |
| 2005 한국은행 통화정책대회 전국결선 준우승 | 2010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우승 |
| 2005 제2회 부경대 총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우승, 준우승 | 2010 국회의원배 토론대회 국회도서관장상 |
| 2006 제1회 전국 대학생 증권 선물 경시대회 준우승 | 2010 제7회 부경대 총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스피치상 |
| 2006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준우승 | 2011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우승 |
| 2007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장려 | 2011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 동상 |
| 2007 제4회 부경대 총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본선진출 | 2012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준우승 |
| 200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우승 | 201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준우승 |



성혜 (부산대학교 경영경제 학술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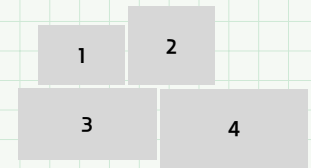
1958년에 설립되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제통상대학에서 현존하는 동아리 중 가장 오래된 경영경제 학술동아리

설립_ 1958년

지도교수_ 송태호 교수님

홈페이지_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2640200>

페이스북_ <http://www.facebook.com/PNUsince1958>



1. BIZ경영사례연구 대회 <우수 2팀, 장려 1팀>
2. 경제통상대학 PT대회 <대 상>
3. 2014 하계 야유회
4. 성혜50주년 행사



인사말

반갑습니다! 재학생 성혜 회장을 맡은 경영학과 12학번 장규익입니다. 우선 이렇게 회원경영에 우리 동아리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성혜를 소개하자면, 현존하는 동아리들의 이름이 대부분 영어로 지어진 데 반하여 ‘성혜(成蹊)’라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의 경영경제 학술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혜란 사기(史記)에 나온 ‘도리불언 하 자성혜’라는 글귀에서 따온 이름으로서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밑에 절로 길이 난다는 뜻입니다. 풀이하자면, 성혜는 덕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절로 모여든다는 말입니다.

동아리 구성



현재 성혜는 재학생 성혜 그리고 졸업생 성혜(재부, 재경)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졸업생 성혜는 재경 성혜, 재부 성혜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경 성혜는 서울·경기 지역에 진출해 있는 졸업생 선배님, 그리고 재부 성혜는 부산·경남 지역에 진출해 있는 졸업생 선배님들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성혜인으로서의 활동은 졸업생 성혜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배님들 간의 네트워크는 매우 끈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학 성혜는 선배들로부터 학기당 약 15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 학기 야유회, 송년회 등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마다 선배님들로부터 값진 말씀을 많이 듣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 드리면 언제든지 많은 도와주시며 모든 방면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전 국무총리 이현재 / 외환은행 지점장 강태신 / 한국은행 감사실 부국장 강태중

삼성종합화학 대표 황선두 / 미즈호코퍼레이드은행 법령준수 담당실장 강형석

LG화학 해외영업팀 부장 손원익 / 우리은행 월곡지점장 이종성 / SK에너지 경영전략담당 상무 김형건

한국은행 구로지점장 이정열 / 하나대투증권 복수원지점장 정홍관 / 호텔 LOTTE 정책본부 지원실 이사 김성권

코오롱 스포츠 죽전 대표 유영권 / 한진중공업 상무이사 노삼석 / SK에너지 부산 물류센터 관리팀장 박창일

비투비 세무회계 사무소 공인회계사 엄동현 / 현대오일뱅크 회계팀 차장 안정호

주요활동

스터디 개요 및 진행 방식

- ... 주요 스터디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직접 해보고 싶은 Creative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학기별 총 10회 정도의 정규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매주 월: 7~10시)
- ... 학기별 스터디 회원은 20명 미만으로 4팀(4~5명)으로 매주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 ... 모든 발표 자료는 촬영되어 동아리 클립을 활용하여 업로드 되고 피드백 받습니다.

출석 체크	5분 스피치 & 시사발표	A팀 발표 & 피드백	B팀 발표 & 피드백	휴식	5분 스피치 & 시사발표	C팀 발표 & 피드백	D팀 발표 & 피드백	마무리
----------	------------------	----------------	----------------	----	------------------	----------------	----------------	-----

구체적인 학술 활동 설명

- ... **Harvard business review** ‘You may not need big data’와 같이 현재 학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제에 관한 영어지문을 직접 읽고 분석하여 그에 따른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사고의 전환, 깊이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스터디입니다.
- ... **한국경제, 매일경제 주간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제시하는 스터디입니다.
- ... **Creative 스터디 사례** 실제 부산대 앞 자영업 컨설팅, PNU BIZ 경영사례연구 대회, 각종 공모전, 역사 토론, 성혜 홍보전략 등.
- ... **5분 스피치 및 시사발표** 매주 2명씩 자유주제로 PPT를 작성하여 5분간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사에 대한 상식을 기르기 위해 매주 2명씩 칼럼 형식으로 글을 써 회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 ... **소규모 스터디** TESAT, 토익, 영어회화 등의 소규모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스터디에 대해서는 원활한 스터디 진행을 위해 일정 금액 내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맺음말

마지막으로 성혜를 ‘Family(Friend+Family)’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혜는 ‘친구 같으며 가족 같은’ 동아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더욱 스스럼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더욱 양질의 스터디를 만들어 내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7년의 전통 속에서 자리 잡은 선배님들의 보살핌이 지금의 성혜를 건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가족과 같은 동아리 ‘성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아리뿐만 아니라 경영대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ampus Tour

새내기 캠퍼스 탐방

경영 14

석아름 김재진 강수정 최아영

김태욱 김유림 조영필

photo by 임현기





발전기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적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된 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대학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교육연구인프라 혁신과 연구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09년 더 타임스 QS평가에서 국내 종합대 6위 등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비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혁신과 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영대학의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들과 각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경영자께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 최 중 서

발전기금 사용목적

- + 장학기금_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최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0.5%) 이내의 최우수 인재
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2%) 이내의 우수 인재
국제교류 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교환학생 지원
- + 국제교류기금_글로벌화를 위한 학생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치**
외국인 교수 확보사업 : 전공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교수 초빙
국제학술대회 :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 + CPA수험생지원_공인회계사 배출을 위한 장학금 지원**
CPA 2차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 함
CPA 1차 합격자에게 포상금 지급
방학기간 전국 유명강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 운영
CPA 준비생의 24시간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정비
CPA 1차/2차 합격자에 대한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 + 국제경영교육인증(AACBS)기금_경영학 교육시스템 확립**
글로벌 기준의 경영학교육의 국제인증 필요
경영학교육 기반확충에 2011년부터 5년 소요
- + 학술연구기금_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SSCI 최우수 논문포상: 세계 우수 논문지 게재 논문
세계적 석학 초빙 사업: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적 석학 초빙
- + 대학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기금_각종 대학운영개선과 건물 및 첨단 강의시설 확충**
대학운영개선기금: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
경영대학원 전용건물 건설 : 경영전문대학원의 연구동 등 전용건물
첨단강의시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교육기자재 등 첨단강의시설확보

경영 발전기금 출연방법

경영 발전기금 - 경영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자가 지정하시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출연자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출연하신 분에게 기금 운영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 경영 1인 1계좌 갖기운동 ·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
출연자가 매월 1만원씩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불입하는 방법입니다.
- + 경영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기금**
등록금을 한번 내어 후배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출연자가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수혜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경영 특별목적기금**
출연자가 경영대학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입니다. 출연자가 기금명칭을 정하고 해당기금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목적성 축적기금**
출연자가 지정한 목적의 기금으로 축적하고, 이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

기금 출연자에게 대한 예우

- +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예우** 학교홍보물 우송 / 부산대학병원 할인
- +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추가 예우** 출연자명 본관 벽면 각인 보존 / 도서관 이용증 (열람, 대출) / 차량 무상 출입 등록 (1대)
평생교육원 수강료 30%할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국제언어교육원 수강료 30%할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대학만찬 등 학교행사 초청 (연 1회) / 청남 오제봉 선생 서예 병풍 증정 (3,000만원 이상)
- + 금정클럽(1억원 이상)추가 예우** 감사패 증정 (총장)
- + 문창클럽(5억원 이상)추가 예우** 명의 건물명 헌정 또는 흉상, 부조상, 공덕비 건립 (4중 택1)
- + 효원클럽(50억원 이상)추가 예우** 부산대학교병원 VIP 평생무료진료권 증정

상과대학 ·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993년 3월~2010년 8월 (단위 : 천원)

+ 금정클럽(1억원 이상) 김종갑 100,000

+ 응비클럽(1,000만원 이상)

노대섭	48,000	김종태 대표	20,000	김승영 (주)금영 대표	10,000
김일곤 경제학과 교수	30,000	김태홍 (주)정관 대표	20,000	조관승 회계사	10,000
노선호 풍경정화(주) 대표	30,000	최신행	18,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10,000
권청길 월드하우징 대표	30,000	오명열	17,500	손태영 (주)케이씨 대표	10,000
이근철 (주)삼정 대표	30,000	강판수 (주)청강 대표	15,000	정판덕 새부산관광 대표	10,000
우한호 (주)피엔에이 대표	30,000	구자용	10,000	이장생 (주)아남약품 대표	10,000
이상환 세기아케마 대표	30,000	이상일	10,000	박태복 (주)티비카본 대표	10,000
김영주 유정중간설 회장	30,000	이원태 (주)경일통상 대표	10,000	최춘식 AMP동창회장	10,000
구자봉 (주)미래파크 대표	20,000				

+ 미래내클럽(100만원 이상)

김정호 (주)경국 대표	5,000	이해주 경제학 명예교수	2,000	임정덕 경제학부 교수	1,000
김일우 브릿지증권 지점장	3,500	최정환 우성식품 대표	2,000	송창년 대광닛볼(주) 대표	1,0 00
이정상 보생 대표	3,000	박철병 성도회계 지사장	2,000	장지환 성도회계 지사장	1,000
박수만 용진건설(주) 대표	2,500	방수한 AMP52 대표	2,000	곽선화 경영대학 교수	2,500
황보석기 AMP50 대표	2,500	김영식 AMP골프회장	1,000	김태혁 경영대학 교수	1,386
박용득 용진건설 대표	2,500	안태원 (주)한아 대표	1,000	조영복 경영대학 교수	1,800
류 열 일신산업 대표	2,000	김상철 시티엔지니어 대표	1,000	지성권 경영대학 교수	1,500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교 원				동 문			
최종열	1,500	김호범	1,500	김형우	1,500	김은홍	2,000
황규선	5,000	신종국	1,500	조현제	1,500	옥차장	2,000
곽선화	1,500	방호열	1,500	정윤재	1,500	박기순	1,500
김창수	1,500	김진욱	1,500	김지완	4,500	정계섭	1,500
문병근	1,500	이갑수	1,500	권혁태	2,000	김형진	1,500
하충룡	1,500	강원진	2,000				
이균봉	1,500						

+ 단체 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12~57기 약 400,000									
33기	27,000	41기	35,000	46기	23,000	51기	29,500	56기	17,000
36기	23,500	42기	26,500	47기	34,000	52기	21,500	57기	26,000
37기	29,500	43기	35,000	48기	29,500	53기	29,000	경맥 75동기	10,000
39기	30,500	44기	23,000	49기	29,500	54기	17,500	전문경영자 2,3기	10,000
40기	27,500	45기	32,500	50기	24,500	55기	26,500	MBA 37기	2,500

+ 기관 출연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김일곤 임정덕	38,500
(재)울산발전연구원 원장 서근태	29,000
농협 부산대지점 지점장 전동배 김부근 김동현 각 15,000	45,000

+ 마라톤 후원금(33,269)

구자봉	10,000	MBA 34기~40기 김태곤 등 220여명
이병걸	1,000	AMP 45기~54기 박종영 등 80여명
(주)신화사	1,000	Techno-MBA 1기~3기 권오중 등 24명

+ 매월 자동이체 김유일(10만원, 2008년 6월 부터)

경영대학(경영학부) 발전기금 출범 이후

2010년 9월~ (단위 : 천원)

경영학부는 2008년 6월부터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내에 '경영학부 발전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후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 조성대상을 AMP과정만이 아니라 MBA과정과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 지역 유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출범 후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 1인 1계좌 갖기 운동 ·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 금정클럽(1억원 이상) 정준수 | 경영대학 명예교수 100,000 (경영인산장학기금으로 출연)

+ 응비클럽(1,000만원 이상)

김성자 베델농산 대표	10,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20,000	김종관 경영대학 교수	10,000
김유일 경영대학 교수	10,000	AMP 총동문회	20,000	2012 MBA 원우회	10,270
안 승 APM28대 총동창회장	10,000	전상우 MBA 43	10,000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10,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10,000	신종국 경영대학 교수	10,000	강병춘 금오기전	11,000
주영찬 APM 60	10,000				

+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임동찬 니오어학원	9,366	김재오 AMP 59	1,000	최윤영 MBA 42	1,000
문성욱 용원개발 대표	5,000	배근호 AMP 59	1,000	곽지영 MBA 43	1,000
김경희 AMP 59	5,000	정동순 MBA 41	1,000	김영이 MBA 43	1,000
송미란 MBA 41	5,000	문병혁 MBA 41	1,000	김승태 MBA 43	1,000
박철병 성도회계법인 대표	5,000	이우영 경영사 상무이사	1,000	김종범 MBA 43	1,000
장지환 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5,000	손영표 Mindsystem 대표	1,000	김창완 MBA 43	1,000
강종민 한창엔지니어링 대표	5,000	김대철 AMP 55	1,000	류제민 MBA 43	1,000
MBA 44기 원우회	5,000	조강래 AMP 55	1,000	박기원 MBA 43	1,000
부산대 상대 동문 교수회	4,000	이우식 AMP 55	1,000	박동익 MBA 43	1,000
김정교 경영대학 교수	3,000	진병수 AMP 55	1,000	안지홍 MBA 43	1,000
이상래 AMP 59	3,000	김용오 AMP 55	1,000	이 인 MBA 43	1,000
민병권 AMP 59	3,000	김영식 MBA 42	1,000	이제용 MBA 43	1,000
정희자 MBA 41	2,000	김동률 MBA 42	1,000	이창규 MBA 43	1,000
손 인 MBA 동문회장	2,000	박미현 MBA 42	1,000	강민권 가림베스트	1,000
조규성 MBA 42	2,000	양길석 MBA 42	1,000	권란희	1,000
김영순 교직원	2,000	윤성차 MBA 42	1,000	김현우	1,000
세무법인 WE동래	1,290	조비송 MBA 42	1,000	최민호	1,000
황건호 전국투자협의회장	1,000	채창호 MBA 42	1,000	노사관계전문가과정 5기	2,300

+ 소액기부자(100만원 이하)

김종세 MBA 42	500	김현준 MBA 44	300	이채성 MBA 44	300
전경준 MBA 44	500	문주상 MBA 44	300	이현욱 MBA 44	500
김정석 MBA 45	500	박기호 MBA 44	300	정명진 MBA 44	300
박미숙 MBA 43	300	신민화 MBA 44	300	조현진 MBA 44	300
이균봉 경영대학 교수	200	신영섭 MBA 44	500	진순미 MBA 44	300
문희준 MBA 42	200	유용준 MBA 44	300	채현식 MBA 44	500
권춘오 MBA 44	500	윤미라 MBA 44	200	최정진 MBA 44	500
김민수 MBA 44	500	이기만 MBA 44	300	홍승표 MBA 44	500
김범석 MBA 44	200	이상부 MBA 44	200	홍정혜 MBA 44	300
김부미 MBA 44	500	이완범 MBA 44	300	황경선 MBA 44	300
김준우 MBA 44	500				

+ 단체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58기 15,000											
강구철	권태구	김성자	김용규	김종률	김주영	문성희	박상환	이상기	이인희	이호형	최영만
강운형	김광식	김애숙	김인규	김종성	김혜정	박동천	윤창영	이은희	이창근	임춘우	허영숙

최고경영자과정(AMP) 59기 | 25,000

김경희1	김재오	김 진	박상현	배근호	성효선	이병원	이지연	정 희	최영근	황보문자	김경희2
김재환	김형태	박용만	백창흠	송진홍	이상래	장무애	조광제	최재균	김동숙	김종남	류중국
박은희	서근석	이강은	이상필	정애기	차동락	허 현	김명숙	김지혜	민병권	박종규	서종영
이미영	이준수	정운교	최병일	홍순옥							

최고경영자과정(AMP) 60기 | 30,000

강신욱	김승기	김용주	김학열	문삼출	송운섭	이명열	이현동	전홍길	최숙현	김민서	김승주
김종배	노성철	민환기	오정구	이영희	임대옥	조일래	최정동	김민재	김양구	김종현	류정형
박영이	오종환	이제두	임명희	차민근	한영호	김성근	김영훈	김태영	류환옥	송국근	이경렬
이지영	전기도	최병오	홍대근								

최고경영자과정(AMP) 61기 | 46,000

강수범	김기홍	김이권	박동수	서강섭	안병완	이기삼	이인한	정순영	정정희	최기주	현명임
강순재	김동룡	문동춘	박봉관	성기호	오세원	이상우	이일광	정오영	정종진	최덕자	황병홍
강혜숙	김성기	문진춘	박춘일	신원철	원명희	이용수	임동찬	정장식	조성제	허병호	권정욱
김오기	문현재	박필선	안만현	윤춘식	이우영	장재활	정재화	지해용	허판오		

최고경영자과정(AMP) 62기 | 23,000

강종순	김명환	김철환	박지영	박태수	손태성	이창대	제미혜	조규봉	최금옥	하규식	허재혁
김광영	김정숙	문경숙	박태규	손일재	이부영	정금석	조국희	조영환	표강태	한성호	

최고경영자과정(AMP) 63기 | 40,000

강경도	김분옥	김정란	김현하	안수민	이금돈	이동현	이철성	전진수	정용현	제양겸	지연관
고종석	김선아	김정훈	류승열	양승대	이기순	이재호	이현태	정명철	정정균	조정혜	최임근
권성현	김선원	김진순	박주만	유인철	이동근	이종태	임인성	정왕석	정철록	조호인	최종교
김광희											

+ 경영 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교 수					동 문				
강상훈 (3)	김동일 (1)	김종기 (1)	서문식 (3)	이균봉 (1)	김홍근 (1)	한미영 (2)	김두성 (5)	김강수 (1)	이동은 (1)
고광수 (5)	김명중 (1)	김진우 (3)	엄철준 (3)	이장우 (3)	손 인 (10)	김상철 (2)	김승태 (5)	곽지영 (5)	박정일 (1)
김유일 (10)	김진욱 (1)	옥기울 (3)	장활식 (1)	최중서 (3)	김일우 (3)	전상우 (5)	박인규 (2)	김정열 (5)	전우철 (1)
김창호 (1)	이찬호 (1)	조영복 (3)	최철열 (10)	최상문 (3)	김형석 (2)	정광택 (5)	박기원 (1)	반태옥 (5)	김진영 (2)
홍태호 (3)	최수형 (1)	곽춘중 (1)	김기석 (1)	김정교 (1)	이종훈 (1)	박윤봉 (5)	최해관(2)	오상진 (1)	진은경 (3)
					이진호 (2)	강정훈 (5)	전경준 (2)	이재훈 (3)	

+ CPA 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남일회계법인
이병찬 (10)	구태우 (3)	김병선 (1)	문병현 (1)	이지희 (1)	김휘학 (5)	김동휘 (3)
정민수 (5)	오상표 (3)	홍영표 (1)	박진호 (1)	정원호 (1)	박일환 (3)	장호일 (3)
조정환 (3)	정동수 (3)	강병욱 (1)	성유득 (1)	조아라 (1)	공경태 (1)	조용환 (3)
성낙필 (3)	하재혁 (3)	권한수 (1)	이상후 (1)	천정봉 (1)		
공병진 (3)	최정미 (1)	김도균 (1)	이주식 (1)	허태원 (1)	성도회계법인	동원회계법인
진은경 (1)	김민희 (1)	강헌태 (1)	김영수 (1)	이광희 (1)	박근서 (10)	나용주 (5)
손정화 (1)	김정동 (1)	박상욱 (1)	이동계 (1)	이웅기 (1)	예상우 (5)	강명근 (2)

+ 현물 기부 임동찬 | AMP61 인터넷강의 수강권 300매(4,500만원 상당), 토익교재 250권(300만원 상당)

+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지원

박은주 (주)엘큐어	18,000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주)	5,000	김태명 (주)케이시에스	2,000
박창수 (주)씨에스티	12,000	김중현 (주)벨리테크	3,000	최태은 SKC(주)	2,000
부산상대 동문	7,000	효원회	2,000	박상용 MBA 44	500

+ 2012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AMP					
강병중 넥센월석문화재단	10,000	이영희 금호	10,000	조성제 원광종합건설	5,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10,000	이관길 AMP 총동창회 회장	2,000	AMP 62기	3,000

MBA					
손 인 하나인치과병원	10,000	경석회 OB	500	류제민 메트라이프생명	50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 부산	10,000	옥미화 송원식품	300	지대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50
강병준 금오기전	10,000	박기호 세광산업	300	홍승표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30

경영대 교수				상대동문회	
강상훈	230	서문식	230	옥석재	100
고광수	230	엄철준	230	최종열	1,000
김진우	230	옥기울	230		

재능 기부		
조광포토피아 사진촬영	창미사 현수막	만수출판사 전단지

Editor's Comments

편집후기

경영11 임영주



지난 호에 이어 두 번째로 고지편집에 참여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효원경영을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어느덧 효원 경영 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고지를 준비하는 동안 힘든 점도 많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준 나현이와 현기에 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칼럼이나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최중서 학장님, 조교 선생님들, 교수님들, 동문 선배님들, 학우 분들, 경영대학 학생회, 그리고 끝까지 효원경영을 위해 애써주신 문원주 더블비 전 대표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의 노력과 협조를 통해 효원경영이 완성되는 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영13 임현기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효원경영 편집부원으로서의 반년은 경영대학의 여러 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학장님, 조교 선생님과 효원경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럿이 힘을 모을 때 우리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효원경영은 학생, 교수, 교직원, 그리고 동문까지 모두의 힘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13 이나현



2년 전,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 면접 보러 왔을 때 기다리는 동안 효원경영을 읽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제가 효원경영의 일원이 되고 이번 7호도 발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네요! 우선 두 신임을 혼자 가르치고 편집부장 역할 하느라 부담이 컸을 영주 언니와 동기지만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현기, 최중서 학장님, 조교 선생님들, 바쁜 시간 내셔서 칼럼 써주신 교수님들과 재학생 졸업생 학우들, 자료 보내주신 동문회 선배님들, MBA 그리고 AMP 여러분, 마지막으로 경영대학 학생회까지 효원경영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파이팅!